



 세월호 2기
특조위를 기다립니다

- ▶▶ [이달의인물] 꿈을 그리다! 진주여고 2학년 박현정
- ▶▶ [청소년뉴스] 담배 흡진 고교생 자살
‘중고생 손님 안 받아요’ 커피전문점
고등래퍼2, 퍼펙트 마무리
- ▶▶ [학교소식] 도교육청 세월호 참사 4주기 추념식 가져
진주수학체험센터 옛 진양고 터에서 개관식
경진고, 급식소 미소관 개관식
KBS 도전! 골든벨, 진주 진양고서 찍었다
봉원중 나눔 실천·행복 에너지 충전
- ▶▶ [맷강년맷반] 중앙고등학교 2학년 3반편
2017년 명신고 2학년 3반편
- ▶▶ [틴틴이슈] 왜, 선거는 19금?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청소년문제는 청소년 참정권으로
- ▶▶ [19금 파헤치기] 콘돔을 구입해 관찰하다. 콘돔은 19금?
- ▶▶ [특집] 2018 필통 청소년 설문조사
- ▶▶ [현장취재] KBS 도전 골든벨 녹화, 생생 체험기
- ▶▶ [글로벌미팅] 카자흐스탄 유학생 알디아르 살케노브를 만나다
- ▶▶ [우리 학교에만 있다] 선생님과 하이파이브? 교실과 베란다?
- ▶▶ [편의점을 털어라] 영화관의 필수품 팝콘! 이젠 편의점
- ▶▶ [동아리탐방] 잔주제일여고 ‘Dream Catcher’ 꿈을 잡아라
- ▶▶ [동네투어] 풍거동! 우리들이 갈 만한 곳, 어디야 어디?
- ▶▶ [JOB을 잡아라]레이크사이트호텔 이회복셰프를 만나다
- ▶▶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명신고 2학년 영지~를 소개합니다
- ▶▶ [필통순] 다이소에서 똥 쌀, 내 친구를 구하다?
- ▶▶ [대학생이 말하는 학과이야기] 한국외대 통번역학부 2학년 신윤지를 만나다
- ▶▶ [기고글]OO여중 인권모임 인간적으로
- ▶▶ [취재수첩] 부교재 구입,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책값?
급식실은 일반 식당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똥 쌀 권리를 하하라!
보건선생님 어디 가셨지?
- ▶▶ [필통우체통] 독자글모음
- ▶▶ [필통네모로직] 4월호 문제

2018년 한 해도 진주 아이쿵 생협은 필통과 함께 합니다

진주 icoop 생협

필통을 후원합니다.
필통을 진주의 자랑스러움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리적 소비를 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갤러리아백화점
건너편
확장이전

W White Medical
하얀메디컬

하얀메디컬은
분야별 전문의가 진료를 합니다

하얀메디컬 전문과목
하얀피부과
하얀성형외과
하얀소아청소년과
하얀이비인후과



www.whitemedical.co.kr

[이달의 인물] 꿈을 그리다 진주여고 2학년 박현정

‘일러스트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죠.’

동화나 교과서에서 작지만 톡톡튀는 그림들을 본적이 있지 않은가? 무심코 지나가기 쉬운 이 그림들은 가끔씩 개성 있는 모습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고, 작품이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과연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번 호 ‘이달의 인물’의 주인공은 일러스트레이터를 꿈꾸는 진주여고 2학년 박현정 학생이다.

Q. 자기소개 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여자고등학교 재학 중인 2학년 7반 12번 박현정입니다.

Q.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이 생소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A. 일러스트레이터는 주로 광고나 영상매체의 그림이나 문양을 도안하고 제작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일러스트 의뢰를 받은 대상에 대한 스타일과 일러스트레이션 방향 및 주제에 대해 의뢰인과 논의하고요, 대상에 대하여 스타일이나 주제를 연구하고, 관련 시장의 추세 및 고객의 기호 등을 조사합니다. 색채감각과 조형감각 및 세심함과 꼼꼼함 등이 요구되며, 컴퓨터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하고요.

Q.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일러스트를 제작하고 싶은 신가요??

A. 일러스트의 종류가 사실 되게 많은 듯 하면서 적어요. 저는 동화 일러스트도 작업해보고 싶고, 잡지 일러스트, 교과서 일러스트, 서적 일러스트 같은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상상해보세요. 제가 그린 그림이 동화에 실려서 여러 아이들에게 보여진다는 것, 잡지도 그렇고, 그 사실만으로도 엄청 흥분되고 행복감이 가득 합니다.

Q. 일러스트레이터로 꿈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이 좋았고, 관심 또한 많았어요. 제일 처음으로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린 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찜질방에서 본 만화책을 따라 그렸었던 때문 것 같아요. 이후 동네 학원을 다니면서 풍경화, 정물화를 그렸는데 ‘이건 나랑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 뒀어요. 그런데 애니메이션 관련 학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의 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꿈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이기도 하구요.

Q. 가장 존경하는 일러스트레이터는 누구인가요?

A. 음... 제가 존경하는 일러스트레이터는

‘혹요식’ 님이에요. 트위터로 가면 혹요식 님 작품과, 근황을 볼 수 있어요. 처음 혹요식 님의 그림을 접하게 된 게 아마도... 중학년 1학년 때일 거예요. 디즈니 공주들을 한국식으로 재 표현한 그림인데 한국의 멋과 공주 특유의 느낌들을 잘 살린 그림이라서 한 눈에 반했었어요. 이후로 혹요식 님 그림들을 찾아보면서 더 존경하게 되었어요. 또, 최근에 혹요식 님께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포스터를 작업하게 되면서 외국에도 이름을 알리게 되셨죠.

Q. 그림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A. 학원에 다니면서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천천히 실력을 갈고 닦아가고 있어요. 여러 작가들의 그림을 보면서 참고해야 할 점을 찾아요. 인체의 구조나 손과

"저처럼 예체능을 진로로 정한 모든 학생들이 자존감을 기르고 자존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발의 형태, 얼굴의 배치, 옷의 주름과 디자인 등에 대한 자료를 찾거나 주변인들을 모델로 해서 그리기도 합니다. 결론은 멈추지 않고 계속 그린다는 거죠.^^

Q. 수상경력이 있다고 들었어요!

A. 고1 때 미술선생님의 권유로 패션 일러스트 부문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대회가 시작되고 주제를 들었는데 엄청 당황했어요. 저는 드레스를 그릴 수 있는 주제일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을 완전히 깨버린거예요. 저는 당황했고 나중 나오면서 보니까 다른 친구들의 실력들이 대단하다는걸 알았어요. 경험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확인하니 제가 우수상을 탄 거예요. 진짜 엄청 놀랐고 기뻐요. 좋은 경험이었고 자신감을 갖게 되기도 했어요. 이제 어떤 대회든 두렵지 않더라구요.

Q. 일러스트레이터란 꿈을 정했을 때 주변 반응은 어떠셨나요?

A. 일단 가장 먼저 제 꿈을 알게 된 사람은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들은 언제나 제가 그림을 그리고 보여주면 기뻐하고 놀라워하고 좋아했어요. 가족들의 응원은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은 뭔가 흥미로운 눈길로 잘 바라보는 게 느껴져요. 일단 좋아하는 것이니까 신나게 도전해보아야죠.

Q. 꿈을 정하고 나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A. 역시 예체능은 돈이 많이 드는 게 문제겠죠. 그런 만큼 역시 저에겐 ‘이것밖에 없겠다’란 절실함이 더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음... 또 다른 게 있다면 가끔씩 찾아오는 슬럼프와 자괴감? 남몰래 속앓이도 많아요. ‘이러다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간혹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대단한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 맘이 좀 약해지기도 하고... 그래도 모든 걸 이겨내는 방법은 계속 그리는 것 밖에 없죠. 그리고 그리고 그리다 보면 어느새 슬럼프는 지나가 있더라고요.

Q. 이제 본인에게 일러스트는 어떤 의미인가요?

A. 일러스트는 나의 자랑, 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장점과 자신의 자랑거리가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아주 당당히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대답할거예요. 자존감이 되어주고 자신감을 갖게도 해주고 잃게도 해주는 것이 일러스트라고 생각해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이기도 하구요. 누군가에게 그림을 그려 선물로 주면 상대방이 대부분은 기뻐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의 감정도 전달하고, 공유하죠.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림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일러스트가 참 좋은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겐 어떻게 모르지만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A. 예체능을 진로로 정한 모든 학생들이 자존감을 기르고 자존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힘내서 꿈을 이루고 세상과 함께 만나기를 바래요. 제 주변 친구들도 모두 힘을 내서 자신의 길을 열심히 달려 나가길 바랍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미래를 같이 그려나가요. 모두 파이팅! 나도 파이팅! 윤지민, 정나향~ 파이팅!



〈박현정 학생이 직접 그린 작품 중 '세상의 마지막 인어'〉



〈박현정 학생이 직접 그린 작품 중 '핑크 몰리'〉



〔취재/ 광병규(진주교1), 정익찬(진주교2)기자〕

담배 훔친 고교생 자살 경찰 수사 기본도 안 지켰다



경찰이 담배 절도 혐의로 입건한 고교생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수사 지침을 지키지 않아 해당 고교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월8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A(18·고3)군은 지난 1월 1일 새벽 세종시 한 슈퍼마켓에서 친구와 담배 네 갑(1만8,000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이달 5일 가정법원 출석 통지를 받은 A군은 심적 부담을 떨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의 유족들은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가 A군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경찰은 A군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부모 등 보호자에게 단 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았다. 경찰이 “경찰관은 소

년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범죄수사규칙 211조(보호자와의 연락)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A군의 아버지 B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부모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규정과 SPO 지정 매뉴얼만 지켰어도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슴 아픈 일은 막을 수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또 “한 번의 실수로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죄송해 괴로웠다는 얘기를 장례식에서 아들 친구들에게 들었다”며 “이런 일이 지금이라도 생기지 말란 법이 없지 않느냐. 유사한 일이 없는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등래퍼2, 시청률+화제성 잡은 퍼펙트 마무리

Mnet ‘고등래퍼2’에서 ‘명상 래퍼’ 김하온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4월13일 방송된 ‘고등래퍼2’는 파이널 진출자들의 레전드급 무대가 이어지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날 방송분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방송 이후 주요 포털 및 음원 사이트의 검색어는 ‘고등래퍼2 우승자’, ‘김하온’, ‘배연서’ 등 ‘고등래퍼2’ 관련 키워드가 점령했고 그 여운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파이널 무대를 다시 보고 싶어하는 팬들의 반응 또한 높아지며 포털 사이트에 공개된 ‘고등래퍼2’ 파이널 무대 영상이 1~3위(이하 네이버TV 기준)에 올랐고, 불과 6시간 만에 30만 조회 수를 넘기기도 했다.



거다. 누구처럼 되고 싶다 하는 롤모델도 없고 그냥 제가 되려고 한다. 5월 둘째 주에 EP앨범이 하나 나올 예정이다.”(이병재)

“저는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고, 세상을 좀 더 평화롭고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뮤지션이 되고 싶다. 헤매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앞으로 더 멋지고 재밌는 친구가 될 테니 지켜봐 달라.”(김하온)

“아직은 이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계획은 없다. 일단 잡아놓은 목표는 한국 힙합의 주류로써 불뚱을 이끌고 싶다. 그리고 어떠한 경로로든 멋있는 걸 많이 보여드릴 거다. 구상해놓은 걸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된다.”(이로한)

최종우승은 김하온이 차지했다. 2위에는 배연서, 3위에는 이병재, 4위에는 윤진영, 5위에는 조원우가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음원차트 상위권에는 여전히 Mnet <고등래퍼2>의 곡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은 이 프로그램은 수준 높은 음원뿐 아니라 앞으로 힙합계를 이끌어갈 실력 있는 래퍼들을 여럿 배출하며 의미 있는 마무리를 지었다.

이들은 앞으로 어떤 뮤지션이 되고 싶을까? “저는 그냥 빈첸이 되고 싶고 변하지 않을

청소년 3명 중 1명 아침 거른다. 패스트푸드 등으로 비만율은 상승

한국 청소년 세 명 중 한 명은 아침을 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4월26일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함께 발표한 2018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9~24세 청소년 중 아침을 먹지 않는 청소년 비율은 28.9%로 3년 전의 23.7%보다 높아졌다. 아침 식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

은 6.3%였고, 먹지 않는 편이라고 답한 비율22.6%였다. 특히 19~24세의 경우 아침 결식자 비중이 42.6%에 달했다. 반대로 부모 등 양육자와 매일 저녁식사를 하는 청소년의 비중은 27.0%로 3년 전(37.5%)보다 10.5%포인트나 낮아졌다.

초중고 학생들의 비만율은 17.3%로 3년 전의 15%보다 높아졌다. 학생들의 비만율은 신체활동 감소와 패스트푸드 섭취량 증가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2015년 14.8%에서 지난해 20.5% 높아졌다.

늦게 자고 라면 가장 많이 먹는 한국 고교생

한국 고교생들이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가장 늦게 자고, 생활습관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가 지난해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 고교생 8480명(한국은 1, 2학년, 미중일은

중고생 손님 안 받아요 커피전문점 방침에 갑론을박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님을 동반하지 않은 중·고등학생 손님을 받지 않겠습니다.”

4월20일 부산 영도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출입문에 붙어 있는 안내문이다. 이 커피전문점은 안내문에서 최근 들어 인근의 중·고등학생들이 매장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욕설과 무례한 언행, 바닥에 침 뺄기 등을 일삼아 어쩔 수 없이 중·고등학생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 매장 반경 1km 이내에는 중학교 4곳과 고등학교 3곳이 있다.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비해 다소 저렴한 커피를 판매하기 때문에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일부 학생들은 단체로 매장을 찾아 커피 한잔을 시킨 후 몇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1인 1잔 주문이 원칙임을 설명하는 종업원과 학생들 사이에 자주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 측은 일부 학생들이 종업원에

게 지나친 욕설과 무리한 행위를 일삼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손님들이 조용히 차를 마실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중·고생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했다.

지난해 동래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비슷한 이유로 청소년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붙인 바 있다. 당시 이 안내문은 ‘노금식존’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널리 퍼졌고 논란이 일자 커피전문점 측은 곧바로 안내문을 철거했다. ‘노금식존’은 학교 급식을 먹는 중·고등학생들을 ‘급식존’이라 깎아내린 데서 유래한 단어다. 온라인상에는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에 이어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스쿨존’ 매장이 속속 생겨나는 사회적 현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대체로 일부 청소년들의 행태를 비난하며 업주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의견이 많다. 반대로 청소년들의 출입 제한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거세다.

양성평등 수업, 초등 6년간 4시간뿐.. 중·고교엔 없다

초등학생의 정규 수업은 6년간 모두 5828시간. 이 중 양성평등을 직접 다루는 단원은 4시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투’ 운동으로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중앙일보가 초등학교 교과서를 확인한 결과 양성평등에 대해 직접 다루는 단원은 4학년 2학기 사회과목이 유일했다. 그마저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단원 안에 ‘성역할 변화와 양성평등 사회’라는 소단원으로 포함돼 있다. 이 단원은 4시간 수업 분량이다. ‘달라지는 성 역할’ ‘성차별 사례’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장 교사들은 “4시간 수업으로 학생들에게 양성평등의 개념을 알려주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초·중·고교생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지는 교육부가 정하는 ‘교육과정’에서 정한다. 중앙일보가 중·고교의 사회·도덕 교육과정을 살펴봤더니 ‘성평등’ ‘양성평등’이나 유사 개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나

마 직전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선 ‘성평등’이 학습 주제로 있었다. 이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권’의 하위 주제가 됐다.

이런 현실은 북유럽 등 교육 선진국의 성평등 교육과 대조적이다. 스웨덴은 1988년 모든 교육과정에 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했다. 유치원 때부터 여자·남자 각각을 위한 놀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7’에 따르면 성평등 지수가 스웨덴은 5위, 한국은 118위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를 설문조사해 최근 발표한 결과다.

한국은 밤 12시 이후에 자는 비율이 69.5%로 중국(11.7%), 미국(17.9%), 일본(45.1%)에 비해 크게 높았다. 기상 시간도 늦었다. 다른 국가 고교생 절반 이상이 ‘오전 6시 반 전에 일어나다’고 답했지만 한국은 10명 중 2명만 같은 답변을 했다. 진흥기구는 “한국의 경우 아침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비율이 36.1%

로 일본(6.5%), 중국(7.5%)을 크게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주일 동안 3회 이상 즉석라면이나 컵라면(instant or cup noodles)을 먹었다는 답변도 한국(17.5%)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중국(10.4%), 미국(8.1%), 일본(4.8%) 순이었다. 반면 채소류를 매일 섭취한다는 비율은 30.1%로 한국이 꼴찌. ‘진학·진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답변(58%)과 ‘나는 될 해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비관적 답변(66.2%)은 4개국 중 가장 많았다.

도교육청 세월호 참사 4주기 추념식 가져

경남도교육청은 4월16일 경남교육연수원 '기억의 벽'에서 세월호 참사 4주기 추념식을 가졌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반성과 안전문화 확산 기여를 위해 마련된 이날 추념식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추념식은 추모묵념, 헌화, 추념사, 추모시 낭송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교육가족들은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의 마음을 담아 헌화하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기억의 벽'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그 교훈을 잊지 않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5년 창원시 사림동 경남교육연수



원 출입구 좌측 벽면에 시민 1100여 명이 참여해 길이 6m, 높이 2m 안팎에 1200여 장의 타일을 붙여 제작됐다.

경해여고총동창회 경해가족전시회 '동행' 열려

지난 4월6일~8일 경남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지하)에서 열린 경해가족전시회 '동행'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진주 경해여고 총동창회(회장 석선옥)는 올해 경해여고 제1회 졸업 30주년을 기념해 1회 졸업 297명 동문이 주축이 되어 경해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뜻깊은 전시회를 구상했다. 이에 따라 전·현직 교사, 동문, 재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다양하게 전시됐다. 생활예술·공연예술 등 다양한 분야, 그리고 전업 작가까지 총 30팀의 작가들이 참여했으며, 기획부터 홍보, 제작, 진행까지 졸업 동문의 직접적인 참여로 치러졌다. 전시회를 통해 작가들의 작품 기부와 경해가족 작품 제작 판매도 이루어졌다. 경해여고는



2018년 31회 졸업식까지 약 1만3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진주수학체험센터 옛 진양고 터에서 개관식

경남도교육청은 4월25일 박종훈 교육감, 이창희 진주시장, 최진덕 경남도의회 의장 직무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대행 김영욱 총무고객처장 등을 비롯해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옛 진양고(현 경남예술교육원 해봄)에서 진주수학체험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문을 연 진주수학체험센터는 7억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봄 4층에 8.5실 규모를 갖췄다. 이곳에는 첨단 디지털 체험교구를 갖춘 산업수학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느끼며 생각하는 수학탐구관, 학생들이 직접 만들면서 상상력을 표현하는 수학 상상공작소,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소프트웨어 체험실 등이 마



련됐다. 진주수학체험센터는 5월부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다음 오는 7월부터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꿈기움 중학교 표준시 되찾기 국민 청원

공립 대안학교 경남꿈기움중학교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시간을 찾아달라'며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했다. "사회시간 우리나라가 일본 시간을 쓰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쓰고 있던 시간을 강제로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시간은 지금보다 30분 느립니다. 진짜 우리의 시간을 되찾고 싶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올바른 미래를 원합니다." 학생들은 지난 3월 21일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학생들은 사회시간 위도와 경도를 주제로 공부하던 중 우리나라 경도는 동경 124~132도지만 135도에 해당하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학



생들 질문이 이어졌고, 일제강점기 에 시간대가 정해져 일본과 같은 시간대를 쓰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문제제기를 시작했다. 실제 같은 경도에 있는 북한은 127.5도를 사용하고 있어 한국과 30분 시차를 보이고 있다.

진주중앙고 학부모 진로진학아카데미



진주중앙고등학교(교장 이가환)는 지난 4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에 걸쳐 '2018 학부모 진로진학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학부모 진로진학아카데미에는 62명의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참석했으며 '대입전형 이해하고 대학진학 설계하자', '자녀의 진로 설정과 인문학적 소양 기르기',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동명고, 중앙로타리클럽 장학금 지원 협약식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중앙로타리클럽과 진주 동명고등학교(교장 문형준)는 최근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고 3월28일 밝혔다. 한국로타리 장학문화재단은 앞으로 3년간 진주동명고에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동아리 인증식



진주시는 지난 4월 24일 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에서 2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2018년 청소년수련관 동아리 인증식'을 가졌다. 청소년수련관 동아리 인증은 각 동아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소속 동아리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날 인증식에서는 올해 새롭게 구성된 19개 청소년 동아리 대표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소속 동아리는 댄스, 밴드, 노래, 암벽등반 4개 분야 19개 동아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남지역 중·고등학생 흡연율 감소 추세

경남도내 중·고교생들의 흡연율이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도내 중·고교생 흡연율은 5.5%로 전국 17개 지역 가운데 12위를 기록해 비교적 타시·도에 비해 학생 흡연율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발표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표본조사 한 '제13차(2017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남도내 중·고교생 흡연율은 ▲2012년 11.6% ▲2013년 9.7% ▲2014년 9.4% ▲2015년 7% ▲2016년 7.2%로 전반적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다.

진주외고 진로특강 광고의 세계 들려주다



진주외국어고등학교(교장 정귀화)에서는 지난 4월4일 진로진학 초청특강이 실시됐다. 이날 특강은 진주외고 5회 졸업생이자 전 제일기획 수석국장인 정재명 씨가 강사로 참여했으며, 정 강사는 '나는 카피라이터다'를 주제로 광고계의 여러 면을 심도 있게 소개했다. 한편 진주외고는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진학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특강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진주제일중 교육과정설명회 개최

진주제일중학교(교장 조창현)는 지난 3월 23일 소통과 공감으로 학부모와 함께 여는 교육과정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는 1,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학부모들이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가지고 소통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1부에서는 2018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및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학부모 대상 교육, 학생지도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는 자녀교육과 관련해 담임교사와 학부모들간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이 이어졌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 경남체고에 3000만원 기부



NH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본부장 김석균)는 지난 4월24일 체육인재 배출의 요람인 경남체육고등학교를 방문해 체육인재 육성기금 3000만원을 기부하고, 학생들과 점심을 같이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체육인재 육성기금은 미래 경남과 대한민국의 스포츠 영웅 탄생을 위한 다양한 체육교육에 쓰여질 예정이다.

진주기공 청소년 비즈쿨 운영 경남선도학교 협약 체결

진주기공공업고등학교(교장 이기백)가 4월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청소년 비즈쿨 운영 경남선도학교 협약을 체결했다. 비즈쿨(Bizcool)은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업이 정신 함양 및 창업교육을 통해 꿈과 끼, 도전정신과 진취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진주기공고는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높이 평가를 받아 비즈쿨 운영학교 중에서도 경남지역 비즈쿨 거점 역할을 하는 '2018년 청소년 비즈쿨 선도 운영학교'로 2년째 선정됐다.

엄희량 엔티코리아 대표 진주여고 발전기금 전달



진주여자고등학교는 지난 4월12일 오전 10시 진주여자고등학교 회의실에서 ㈜엔티코리아(대표 엄희량)로부터 학교발전기금 10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엔티코리아는 산청군에 위치한 PP BAG 전문제조업체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모범업체다. 진주여고를 졸업한 엄 대표는 학창시절 아름다운 교정과 선생님들의 가르침, 친구들과의 우정이 삶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기에 작은 보답이지만母校의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진고 급식소 미소관 개관식



진주 경진고등학교(교장 오세흠) 급식소가 '확' 달라졌다. 경진고등학교는 4일 급식소(미소관)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에는 오세흠 교장 등 학교 관계자를 비롯해 이창희 진주시장, 정명규 진주교육장, 교육청·총동창회 관계자, 학부모, 재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진고는 급식소 시설이 낡고 환경이 열악해 리모델링 공사의 요구가

높았다. 공사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됐으며 공사비는 총 5억 585여 만원이 들었으며 도교육청에서 4억 5857만 원, 진주시에서 1억 원(대응투자 지원금)을 부담했다. 한편 경진고는 지난해 매력적인 직업계고로 선정돼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급식소 개관뿐만 아니라 인성테마숲, 동아리 실 신축 등도 진행하고 있다.

KBS 도전! 골든벨 진주 진양고서 찍었다



진양고등학교는 지난 4월13일 'KBS 도전! 골든벨' 촬영녹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목요일 오후 리허설로 시작해서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진행된 도전! 골든벨 녹화에서 100명의 골든벨 도전자들은 신중하고 진지하게 문제를 풀었으며, 패자부활전

에서는 OX 퀴즈를 통해 전원 부활에 성공했다. 학생들의 끼와 재치있는 입담으로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촬영이 진행됐다. '도전! 골든벨' 진양고 편은 오는 5월 13일에 방송될 예정이다.

진양고등학교 합창경연 대회 상금 기부



진주 진양고등학교(교장 강태석) 남녀혼성 합창동아리 '소리어울림'은 지난 4월23일 학내 합창단 교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근용)에 100만원을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부한 상금은 최근 열린 제12회 전국고교합창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해 받은 상금 전액이다. 합창단원들은 상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한 끝에 2018 드림UP 프로젝트 '잠자는 100원, 희망을 열다' 캠페인에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진주고 해피투게더 동아리 장애인의날 행사 열어

4월20일 진주고 점심시간, '해피투게더' 동아리는 '제38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열었다.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도 모으고, 관련 표어도 만들었다. 또 짬짬이 퀴즈 선물도 준비했다. 장애인식 관련 퀴즈를 풀고 정답자엔 달콤한 간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차별과 차이', '다름과 틀림'을 알아가고자 하는 '행복한 동행, 해피투게더' 동아리가 준비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선명여고 태백산배 배구대회 우승

진주 선명여자고등학교 배구부가 '2018 태백산배 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이하 태백산배)'에서 여고부 우승을 차지했다. 선명여고는 4월19일 태백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태백산배 결승전에서 원곡고를 물세트 끝에 경기초반 0-2 세트스코어를 3-2(23-25, 26-28, 25-12, 29-27, 15-10)로 꺾고 여고부 정상에 올랐다. 한편, 같은 날 남고부 결승전에 진출한 진주동명고는 남성고와 접전 끝에 3-1로 패배해 아쉽게 준우승 그쳤

고, 여중부 결승전에 진출한 경해여중 또한 대구일중에 2-0으로 패해 준우승을 했다.

진주외고 맞춤형 치유 연극 관람

진주외국어고등학교(교장 정귀화)는 지난 4월20일 '한국드라마 치료연구소'를 초청해 맞춤형 치유 연극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날 좀 이해해줘'라는 제목으로 90여분간 실시된 이번 연극은 학생들의 고민과 성장통을 주제로 다뤘다. 이를 통해 진주외고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진주외고는 앞으로 이와 같은 학업중단집중지원학교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진고, 경남도 지방기능경기대회 휩쓸어

진주 경진고등학교는 최근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에서 열린 '2018년 경상남도 지방기능경기

봉원중 나눔 실천 · 행복 에너지 충전



진주봉원중학교(교장 조일래)는 지난 4월 18일 '1인 1사랑 나눔 데이' 행사와 '행복 에너지 충전의 날-교육복지 보물찾기' 행사를 가졌다. 오전 등교시간에는 교문 앞에서 '1인 1사랑 나눔 데이' 행사를 가졌다. 진주푸드마켓과 함께 기획한 이 행사는 진주봉원중학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학교 2년차로 다양한 복지사업 혜택을 받고 있음에 따라 작은 생필품 한 가지라도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해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

지로 진행했다. 특히 교육복지 온새미로 자원봉사단원들이 주축이 되어 학생과 교직원 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진주봉원중은 전 교직원과 학생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함께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주봉원중학교의 교육복지실에는 180여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로 북적였으며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공군항공과학고 지방기능경기대회 메달 잔치

공군 교육사령부 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항공과학고)가 지난 4월9일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에서 열린 '2018년 경상남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시상식에서 금메달 3개를 비롯해 총 6개의 메달을 수상했다.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지역의 우수한 기술인들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지역 내 기술 및 기능개발을 촉진하고자 매년 전국의 특별시·광역시·도가 각각 주최하는 대회이다.

경상남도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지난 4월부터 9일까지 6일 동안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등 7개 경기장에서 개최됐으며, 공업전자기기 등 45개 직종에 494명의 기술인들이 참가했다. 항공과학고 학생 6명은 3개 직종에 참가해 도내 기술인들과 경쟁을 벌였다. 대회 결과 ▲공업전자기기 직종에서



금메달(3학년 윤찬)·은메달(2학년 이정주)·동메달(2학년 민병우) ▲IT네트워크시스템 직종에서 금메달(2학년 강성대)·은메달(2학년 정민기) ▲웹디자인 및 개발 직종에서 금메달(2학년 김도현)을 각각 수상했다.

조재혁의 라이브 렉처 콘서트로 열려 학생들에게 색다른 문화적 이벤트를 선사하기도 했다. 승산그룹은 1986년부터 30년 넘게 꾸준히 진주여고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경상대 사대부고 기초교양 아카데미

경상대학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교장 하동진)는 지난 4월18일 기초교양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경상사대부고는 기초교양 아카데미 개최를 위해 이날 경상대 인문학연구소(소장 국어국문학과 정영호 교수)와 교육지원을 위한 인적자원 교류와 상호협력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해 자연, 공학, 수의학, 농학 분야 등 연간 8개 주제의 강좌가 열릴 예정이다. 첫 기초교양 아카데미는 경상대 불어불문학과 이춘우 교수의 '19세기 말 프랑스의 자포니즘'과 경상대 수학교육과 조열제 교수의 '수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란 주제로 진행됐다.

승산나눔재단, 진주여고 30년 넘게 장학금 지원

진주여자고등학교(교장 최덕양)는 지난 4월20일 진주여고 일신관에서 열린 승산나눔재단이 주관하는 콘서트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승산나눔재단은 매년 지역의 모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올해 진주여고 재학생 30명에게 1인당 140만8000원씩 총 4224만9600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피아니스트

[특집] 청소년들의 생각을 옮기다

2018 필통 청소년 설문조사

진주지역 고교생 1100명 참여, 생활-교육-사회 3개 분야 설문조사

2018 필통 설문조사는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우리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쯤에 있는지 의견을 들어 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진주지역 고교생을 대상을 일상 생활분야, 교육관련 분야, 정치사회 관련분야로 나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진주지역 고교생 1100명(남학생 530명, 여학생 570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기간은 지난 4월9일부터 14일까지 각 학교의 필통 학생기자단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설문 참여한 학교는 삼현여고, 진주여고, 제일여고, 경해여고, 명신고, 진주고, 대아고, 동명고, 진양고, 진주중앙고, 경상사대부고 총 11개교였습니다.



[일상생활분야]

1.나는 행복한가?

행복하다 62%, 남학생이 더 행복지수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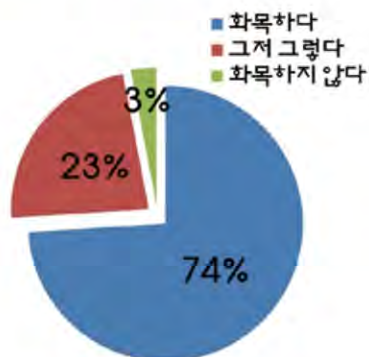


사실 청소년들이 놓은 환경은 객관적으로 행복과는 좀 거리가 있다. 입시지옥, 경쟁, 학교와 학원을 돌고 도는 쳇바퀴 생활... 그래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언제나 바닥을 면치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설문결과는 조금 의외다. 진주 청소년들은 멘탈이 썩편인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해서 그런지 행복지수가 그리 낮진 않아 다행스런 결과다. '행복하지 않다' 라는 답은 7%에 불과 했다. 남,여학생을 비교해 보면 남학생은 67%, 여학생은 57%로 남학생의 행복지수가 여학생보다 다소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우리집은 화목한가?

화목하다 74% 압도적



청소년들이 말하는 '화목'이란 것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살짝 든다. '화목하지 않다.' 라는 답변은 전체의 단 3%에 불과 했다. 어려운 경제상황, 이혼율의 증가, 맞벌이가 기본이 되어 버린 가정, 가족이 모여 저녁을 함께 먹기도 힘든 것이 요즘의 시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비하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정에 느끼는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힘든 가정형편과 부모님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남녀 학생은 남학생 77%, 여학생 71%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3.고민을 나눌 친구가?

92% 절친이 있다.



참 다행스런 결과다. 청소년들의 성장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바로 '친구'가 아닐까? 성장통을 겪고 수많은 고민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을 때 가장 힘이 되는 존재가 친구이기 때문일 것이다. 무려 92%가 '고민을 나눌 친구가 있다' 라고 한다. 남,여학생 역시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4.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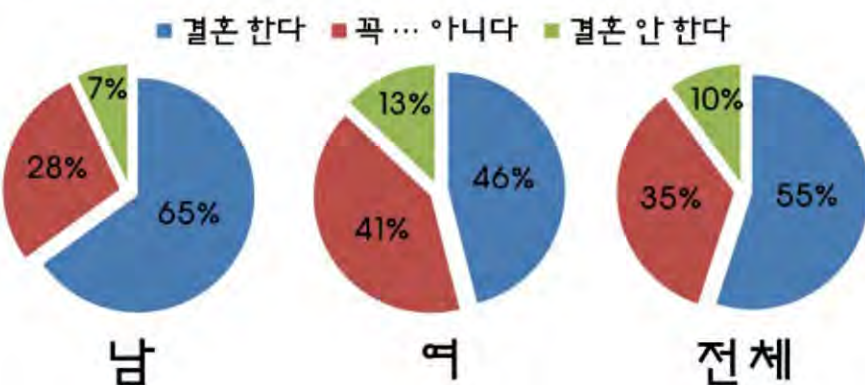
가족 42%로 최고, 돈,건강,친구 순



청소년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족'이었다. 무려 42%다. 다음으로 꼽은 것은 돈, 건강, 친구 순이었다. 눈여겨 볼만 한 것은 직업이나 배우자를 선택한 경우가 4%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극히 적었다는 것이다. 가족이 중요한 존재인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오늘날 자신의 가정에 만족해 서인지, 아니면 행복함이 부족해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것인지 그 결과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특이하게도 남, 여학생의 설문결과가 가족-돈-건강-친구 순으로 똑 같았다.

5.나는 결혼 할 것인가?

결혼 안할 수도 있다 45%, 남녀학생 생각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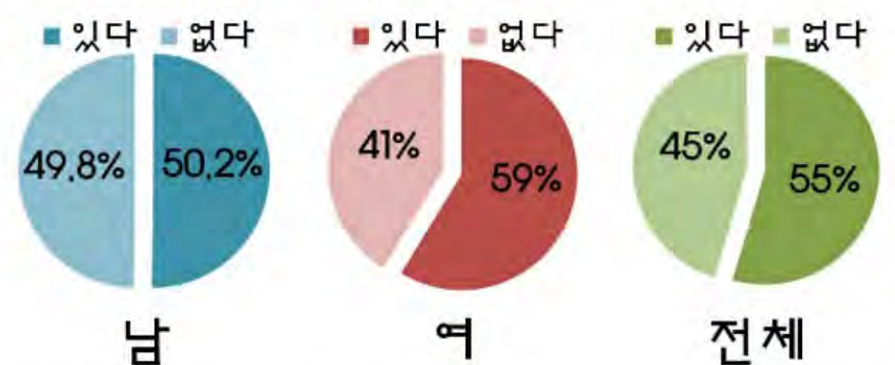


청소년들의 결혼관은 시대를 반영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혼은 할 것' 이라고 답한 학생은 55%에 불과 했다.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안 한다' 가 무려 45%다. 즉 결혼을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혼을 당연시하는 전통적인 사고와 청소년들의 인식의 차를 확연하게 보여준다. 결혼도 힘들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 요즘 세상을 청소년들도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봐야한다.

결혼관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생각차도 크다. '결혼은 한다' 라는 답변은 남학생은 64.9%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여학생은 46.3%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즉, 여학생은 '결혼을 안한다' 또는 '안할 수도 있다' 라는 부정적인 답변이 53.7%에 달했다. 결국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이 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기존 여성들의 삶이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현실을 직접 보여 확인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6.연애경험이 있는가?

여학생이 연애경험이 더 높게 나타나 59%



청소년들의 연애. 아마도 대부분의 어른들은 '난 반달세'를 외칠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막을 이유가 무언가'로 생각이 나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연애의 기준이 꼭 나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조금은 억지스럽다. 어른들과 학교는 그저 학생들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설문결과 남학생은 50.2%, 여학생은 59%가 연애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예상과 다르다고 봐야 할까? 결과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연애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가장 큰 스트레스는? 학업, 성적 압도적 65%



이미 답이 정해진 질문이었는지 모른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생각할 것도 없이 '학업과 성적'이다. 과연 당연한 정답일까? 65% 압도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업과 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왜 꿈 많은 청소년기에 일상적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 또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현실은 정상인걸까? 묻지 않을 수 없다. 남녀 학생들의 결과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남학생 66.8%, 여학생 62.9%로 학업, 성적 스트레스를 꼽았고 진로문제와 친구관계가 그 뒤를 이었다.

[교육관련 분야]

1. 학교생활에 만족?

만족한다 54%로 낮은 수준, 불만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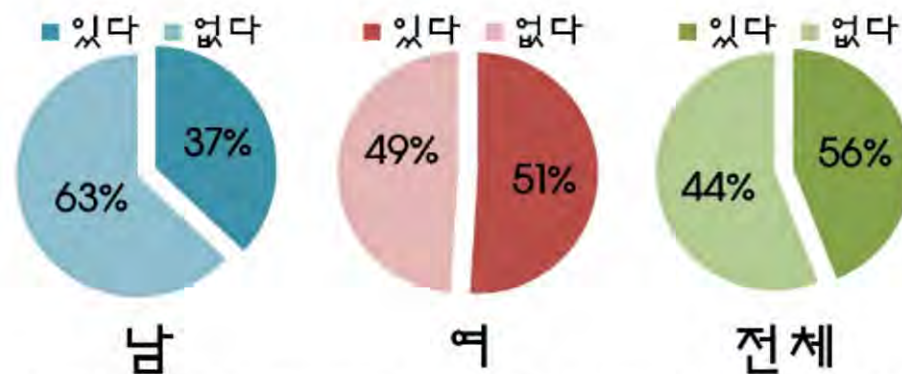


객관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은 그다지 행복해 보일 것 같지는 않다. 이른 아침 등교, 계속되는 수업, 방과후 보충, 야간자율학습까지 답답한 학교생활을 좋아라 할 학생들은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남학생이 55.8%로 여학생 51.1%보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조금 높았다. 주목할만한 점은 함께한 설문 중 '행복한가' '우리집은 화목한가' 라는 조그만 다른 만족도 질문에 비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2. 자퇴를 고민한 적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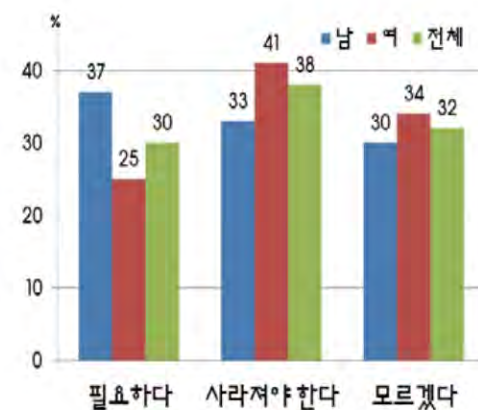
자퇴고민 여학생이 훨씬 높아 51%



학교밖 청소년이 35만명을 넘긴다고 한다. 이렇듯 청소년은 이제 학교안에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는 44% 학생들이 자퇴에 대한 고민의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으로 높은 결과였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해서 보면 그 결과가 조금은 충격적이다. 여학생이 51%로 남학생의 37% 보다 훨씬 더 자퇴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결과였다. 여학교에서 좀 더 세심한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4. 교육적 체벌은 필요한가?

체벌 반대가 8% 더 높아, 남녀학생 의견 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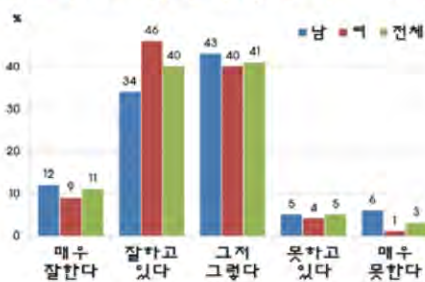
체벌문제는 학교에서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현실적으로 교육적인 체벌은 필요하다 라는 의견과 그 어떤 체벌도 인권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선다. 이번조사에서도 역시 의견은 갈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38%:30%의 결과로 '체벌은 사라져야 한다' 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보다 높았다. 찬반이 비슷했던 과거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와 비교해 보면 그나마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할만한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생각이 뚜렷하게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여학생은 41%:25%로 체벌에 대한 반대여견이 훨씬 높았는데 반해 남학생의 경우는 오히려 33%:37%로 교육적 체벌을 '찬성' 하는 의견이 더 우세한 결과를 보였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인권의식이 낮다 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학교현장에서 폭력에 둔감한 남학생들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가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다.

[정치사회 관련 분야]

1. 대통령은 국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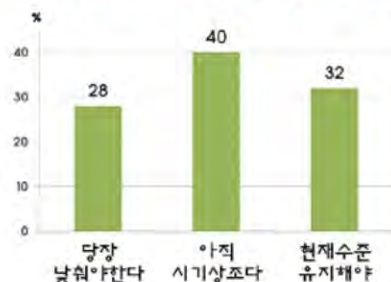
잘한다 51%, 부정평가 극히 낮아



청소년들은 사실 정치, 사회문제에 관심이 덜하다. 어른들이나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정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그다지 고무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미래의 유권자이고 당당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필요하고 그것을 잘 잡아 주는 것 역시 교육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청소년들은 어떤 점수를 주고 있을까? '매우 잘한다' '잘한다' 긍정평가는 51%였다. 남학생이 46%인데 반해 여학생은 55%로 좀 더 후한 평가를 했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로 '못한다' '매우 못한다' 로 답한 학생은 단 8%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며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선거권 연령인하?

시기상조다 40%, 가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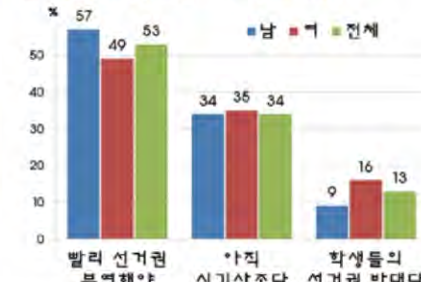


선거권 연령인하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늘 이슈가 되고 논쟁이 되는 사안이다. 시간이 갈수록 선거권 연령인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청소년들의 생각은 어떨까? '당장 낮춰야 한다' 는 28%였다. 가장 많은 의견은 '아직은 시기상조' 40%로 가장 높았다. 결과적으로 68% 학생들은 선거권 연령인하는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결과다. 남, 여학생의 결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18세가 되면 결혼도 가능하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 취직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납세의 의무도 갖게 된다. 국민에게 각종 의무는 부여하면서,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3. 교육감 선거 참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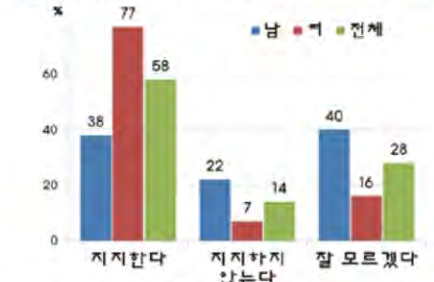
빨리 선거권을 달라 53%



선거권연령인하 문제와 교육감선거 참여는 비슷한 질문처럼 느껴지지만 학생들의 답은 완전히 달랐다.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빨리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 가 절반이 넘는 53%의 지지를 받았다. '시기상조다' 34%를 합치면 학생들의 선거권 찬성의견이 87%에 이른다. 남, 여학생을 구분해 보면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빨리 선거권 부여'에는 57%:49%로 여학생이 더 적극적이었고 반대로 '학생들의 선거권을 반대한다' 는 의견에는 16%:9%로 남학생이 훨씬 압도적이었다. 학생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감선거에는 학생들이 그 주제로 참여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미투운동을 지지하는가?

남학생과 여학생의 온도차 너무 크다



과연 청소년들은 이 미투운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 결과는 조금 놀랍다. 미투운동을 지지하는가 라는 질문에 무려 28%가 '모르겠다' 라는 답변을 했다. 좀 더 자세히 결과를 들여다보니 그 이유는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생각 차이였다. 여학생들은 77%로 미투 운동의 압도적 지지를 밝혔지만 남학생들은 '지지' 의견이 38%에 불과했다. 의외로 '지지하지 않는다' 도 22%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였고 무려 40%의 남학생들이 '모르겠다' 라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분명 이런 결과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재 학교 현장에선 제대로 된 성교육, 또 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선 미투 운동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 그리고 성평등의 문제로 얘기되고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대립으로 극단적이고 무분별한 논리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대재생산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분명한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9금 톡톡] 콘돔을 구입해 관찰하다

청소년 성문제는 심각해... 그런데 콘돔은 19금?

여러분은 콘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콘돔은 라텍스 고무 재질의 피임용 도구로, 성행위를 할 때 남성의 발기한 성기에 씌워서 사용하며 사정 혹은 성행위 시 정액(정자)을 여성의 성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며 점막끼리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서 임신 및 성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피임방법들에 비해 사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줄 확률이 적고, 구하기 쉬우며, 사용이 쉽고,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현대의 가장 대표적, 보편적인 피임법이며, 가장 강력한 성병 예방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웬지 ‘콘돔’은 19금처럼 느끼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콘돔은 청소년들의 기본 상식, 이제는 똑바로 알도록 하자.

콘돔을 구입해 자세히 살펴다

콘돔을 구매하는 것에는 약간의 부끄럼과 함께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계산만 하면 끝이었다. 그렇다면 학생이 콘돔을 사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편의점 직원에게 콘돔을 사 가는 학생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물어 보았지만, 직원들은 모두 “별생각 없었다.” 또는 “잘 모르겠다. 그냥 다른 제품 사 살 때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라는 등의 대답이었다.

구매한 콘돔을 개봉해 열어 보았다. 박스 포장은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아기자기한 크기에 동물의 사진이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작은 글씨로 상자 안에 콘돔이 몇 개 들어 있는지, 콘돔의 형태와 제품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특이하게 상자 안에는 따로 사용설명서가 없고 상자의 안쪽 면에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원산지, 모델명, 첨가 같은 상세한 제품 설명이 적혀 있었다. 기자가 산 콘돔에는 두 제품 모두 3개씩의 콘돔이 있었다. 제일 중요한 내용물인 콘돔은 이게 그렇게 늘어날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작게 말려 있어 조금은 당황스러웠다. 콘돔에는 마찰을 줄여 주기 위해서 미끌미끌한 윤활제가 발려 있었다.

질문	남학생	여학생
보건시간 또는 개인적으로 콘돔을 사용해 본적이 있나요?	○ (3명) / X (3명)	○ (6명) / X (3명)
콘돔사용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나요?	○ (3명) / X (3명)	○ (5명) / X (4명)
콘돔의 가격은 얼마정도 인지 알고 있나요?	보통 4천원 이상 (1명) 잘 모르겠어요 (5명)	3000원 ~ 5000원정도 다양한 의견
콘돔을 만져봤을 때의 느낌은 어땠나요?	<남학생> 물컹물컹 부드러웠어요./ 미끌미끌하고 기름 같은게 짜증났어요. 이상했어요./ 끈적끈적했어요. / 기름이 이상했어요. <여학생> 미끌미끌해서 기분 나빴어요./ 질감이 미끄럽고 소재가 질겨서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확신이 들어요. / 미끌미끌하고 냄새나고 손에 기름이 묻어서 싫었어요./ 얇았고 미끌거리는게 싫었어요. / 기름느낌이 심해서 이상했어요. 손을 씻어도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TIP
콘돔 사용시
주의사항



콘돔의 모양을 보게 되면, 성기의 맨 앞쪽에 씌우는 부분은 살짝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 꼭지 부분에 차 있는 공기를 반드시 빼고, 성기에 씌워 주어야 합니다. 공기가 차있을 경우에는 남성이 사정을 함으로써 콘돔이 풍선이 터지듯이 터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 콘돔 구매해 봤다. 70% 사용법 안다?

언젠가 콘돔을 사용하게 될 남학생들에게 물어 봤다. 콘돔을 사 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콘돔의 정확한 사용법을 알고 있는지, 말이다. (중앙고, 사대부고 남학생 40명)

콘돔을 직접 구매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40명중 7명, 18%였다. 대부분 편의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실제 성관계 때문에 콘돔을 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콘돔의 사용법을 아느냐는 질문에 28명, 70% 학생들이 ‘잘 안다.’고 답해주었는데 아마도 학교 성교육시간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0% 학생들이 여전히 사용법을 모른다는 것도 조금은 의외였다.

학생들은 모두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서 콘돔의 쓰임과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간략하게 알고 있을 것이



다. 그런데 앞으로 이 콘돔을 쓸 수밖에 없고 당연히 써야 할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콘돔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을까? 또한 그들이 제대로 성교육을 받아왔는지도 의문이다. 그리하여 청소년의 성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범한 남자 고등학생 4명에게 콘돔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인터뷰를 해보았다.

질문	이 모군(18)	윤 모군(18)	홍 모군(18)	김 모군(18)
학생은 콘돔구매가 가능할까?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콘돔은 어디서 살 수 있을까?	약국, 편의점	편의점	편의점, 약국	편의점, 대형마트
콘돔사용법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나? (설명 할 수 있나?)	자세히 모름	자세히 알고 있고 설명할 수 있다.	자세히 모름	자세히 모름
우리나라 성교육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진취적이어야 한다. 콘돔을 써야 한다고만 가르치지 말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야 한다.	난 콘돔 사용법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실습교육이 안되는 것이 우리 현실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생각한다. 자세히 성관계를 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렸을 때부터 자세하게 성교육을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더 민망해 하였던 것 같다. 성관계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통해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의 콘돔 구매는 어려워



청소년들이 콘돔과 같은 피임도구를 약국이나 편의점에 가서 당당히 자연스럽게 구매하기란 쉽지 않다. 만일 구입을 원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당연히 온라인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온라인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는 절차가 청소년들로서는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신용카드가 있는 것도, 공인인증서가 있는 것도, 계좌도 있어야 하고 송금도 그리 간단치가 않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나 홈쇼핑사이트는 피임도구에 대한 검색뿐 아니라 구입자세를 19금으로 막아 놓고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 실제 ‘콘돔’은 일반품목임에도 불구하고 19금으로 청소년에게는 실제로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그 외의 다른 피임도구 또한 금지되어 있다. 결국 인터넷 온라인상에서는 청소년들이 콘돔을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청소년에게 돌출형 콘돔 판매가 불법인 이유



지금 한국에서 청소년이 콘돔을 구매하는 건 합법이다. 다만, 청소년이 콘돔을 구매하기 어려울 뿐이다. 그러나 청소년이 일반 콘돔이나 초박형 콘돔이 아닌 ‘돌출형’이나 ‘링형’ 같은 특수 콘돔을 구매하는 건 불법이다. 여성가족부가 그렇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왜 일반콘돔은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해놓고, 특수콘돔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걸까?

2013년 8월 13일 개정된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결정 고시에서 특수 콘돔은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로 규정돼 있다. “성적 자극 감각에만 탐닉할 수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 “여성 성기에 자극을 가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 “성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이라고 판매 금지 이유를 밝혔다.

[편의점을 털어라] 영화관의 필수품 팝콘!

아직도 영화관 팝콘만 먹나요? 이제 가성비 최고 팝콘들을 만나보자

설마 영화관에서 영화만 보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관에 가면 누구나 팝콘을 찾을 겁니다. 영화비 7000원 거기다 팝콘 최소 4500원! 영화 한 편 보고나면 남아나지 않을 학생들의 지갑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최고 인기 스낵, 바로 팝콘. 편의점별 팝콘 리뷰를 통해 다양한 맛과 저렴한 가격으로 당신의 입맛을 사로잡을 팝콘이 무엇일지 골라보시라!



팝콘이 대세, 새우깡 늘었다

주로 영화관에서만 즐기는 먹거리로 인식됐던 팝콘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PB팝콘은 '국민과자' 새우깡의 아성을 무너뜨릴 정도로 인기고, 수제 팝콘 전문점도 늘어나고 있다. 스낵과자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한 스낵과자는 팝콘이 유일하다.



실제로 편의점 CU의 팝콘 매출은 최근 2년간 매년 2배 이상씩 성장했다. '국민과자'로 통하는 농심 새우깡을 제치고 매출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GS25에서도 팝콘은 효자 상품이 되었고 세븐일레븐에서는 '스낵류 판매 베스트 10'에서 팝콘이 1위에 올랐다.

그렇다면 팝콘의 기세가 이렇게 드높아진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최근 집에서 편하게 최신 영화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홈시어터족', '다운로드족'이 늘어나면서 팝콘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짭짤하기만 했던 팝콘의 맛이 다양화된 것도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emart 24



노브랜드 팝콘 1500원 100g(485kcal)
A기자 : 전형적인 팝콘 맛이다.
B기자 : 양이 가장 많다. 가성비 갑!
C기자 : 그냥 무(無)맛이다.
D기자 : 고소한 맛으로 양이 헤자다.
총평 : ★★☆☆☆

편의점 팝콘을 비교하다

GS25



불꽃 팝콘 1000원 60g(305kcal)
A기자 : 시험을 망친 날에 스트레스 풀려고 불닭 컵라면에 있는 바삭소스에 흰밥을 비벼 먹는 맛.
B기자 : 콘스프라이 팝콘이랑 맛이 비슷한데 약간 맵다.
C기자 : 처음에는 안매운데 먹으면 먹을수록 맵다. 매운 것을 못 먹는 사람에게는 비추
총평 : ★★☆☆☆



벚꽃 팝콘 1200원 60g(305kcal)
A기자 : 맛있는데 엄청은 맛있지 않다. 딸기 빼빼로 맛이 난다.
B기자 : 계속 안먹고 싶다. 하지만 한번쯤 먹어보면 괜찮을 맛.
C기자 : 너무 달다. 츄파춥스 딸기맛. 너무 달아서 별로다.
D기자 : 크라운산도 맛이 난다. 너무 달다.
총평 : ★★☆☆☆
Tip. 벚꽃 팝콘은 매년 3~4월에만 먹을수 있으니 벚꽃과 함께 벚꽃 팝콘을 먹으시길.

MINI STOP



CU



간장치킨맛 팝콘 1000원 60g(325kcal)
A기자 : 달짝지근하고 굉장히 익숙한 맛이 난다
B기자 : 정말 제목그대로 간장치킨 맛이 난다
C기자 : 간장 맛이 연하게 나고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팝콘인 것 같다.
D기자 : 단짠단짠의 정석인 것 같다.
총평 : ★★★★★

7



체다치즈 팝콘 1200원 60g(290kcal)
A기자 : 맛있는데 계속 먹으니 너무 느끼하다.
B기자 : 치즈 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
C기자 : 치즈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추한다.
D기자 : 크림파스타 맛이 난다.
총평 : ★☆☆☆☆

고르곤졸라치즈 팝콘 1000원 60g(275kcal)
A기자 : 첫 맛은 좋으나 많이 먹으면 느끼하다.
B기자 : 밥 반찬으로 먹고 싶다.
C기자 : 체다치즈 팝콘에 비해 더욱 느끼하게 느껴진다.
D기자 : 처음 맡은 향은 발냄새 같음.
총평 : ★★★★★

편의점 팝콘.영화관 OK?



영화관에서는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하라고 권고한 이후 대부분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다만 강한 냄새로 불쾌감을 주는 음식물(햄버거, 순대, 피자, 김밥 등)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음식물(병 제품, 덮개 없는 뜨거운 음료 등)은 '반입 금지 음식물'로 구분된다. 하지만 '강한 냄새', '안전을 해치는'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영화관과 소비자뿐 아니라 소비자끼리도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반입 금지 품목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다. CGV와 메가박스는 '금지 품목'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팝콘은 비싼 영화관 팝콘이 아닌 편의점 팝콘을 얼마든지 반입이 가능하고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볼 수 있다.

팝콘의 과학적 원리?

가끔씩 먹고 싶어서... 팝콘을 사 먹기도 하고 간식으로 가볍게 먹기도 한다. 단연 영화를 볼 때 팝콘이다. 팝콘은 옥수수에 간을 하여 튀긴 것인데, 팝콘에 쓰이는 옥수수는 폭립종 옥수수다. 낱알의 길이 단단하며 수분과 유분이 낱알 중심부에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옥수수가 가열될 때 수분과 유분이 단단한 껍데기로 인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수증기 상태로 갇히면서 내부의 압력이 상승된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팝콘이 만들어 진다.

팝콘에는 이런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데 튀겨지지 않은 콘 알갱이 속엔 미량의 물이 있고 그 물에 열을 가하면 물이 수증기가 되어 부피가 커지면 수증기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게 된다. 그 힘에 의해 밀도가 낮아지고 옥수수의 부피가 커지게 된다. 이렇게 옥수수가 열을 받게 되면 옥수수 내부의 수분이 기체로 상태가 변화하면서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물이 모두 수증기가 되면 그 부피는 물일 때의 1700배가 된다고 한다.



[취재/ 류채영(진양고3), 배찬휘(진주고3), 정해밀(진주여고2)기자]

[맏칸년맏반-신청] 2017년 명신고 2학년 3반편

잘 지내고 있니? 보고 싶다 친구들아!

봄바람을 타고 새학기가 시작된지도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두 3학년이 되어 뿔뿔이 흩어지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4월을 지나 5월을 맞고 있네요. 돌아보면 2017년 2학년 고교시절을 온갖 추억들을 남겨준 반 친구들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신고 역대급 재미와 단합의 상징이었던 2학년3반을 이렇게 '맏칸년맏반'으로라도 기록해 두고 싶습니다. 친구들아, 올해도 멋지게 보내고 다시 보자구^^



우리 반 담임선생님
이유라 선생님

역사 과목을 담당하시고 이쁘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같은 느낌의 성격을 담당하~ 보유하시고 계신다. 반 애들도 잘 따르고 해서 선생님과 우리 반 사이에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반을 만들어 주신다.

나의 이상형 & 좋아하는 것

이름	이상형	좋아하는 것
강상혁	느낌있는 여자	엄마가 해준 김치볶음밥
강주형	착한사람	게임
강태훈	웃는게 이쁜여자	착하고 잘 웃는 여자
김경민	외모도 중요하지만 천성이 바른여자	e스포츠 관람
김근욱	게임 좋아하는 여자	심리학
김낙현	귀여운 여자(불살 필수)	몰캉몰캉 한 거
김민우	애교많은 사람	잠자기
김정원	생각나는 사람	콜드 플레이
김종현	몸 좋은 여자	운동
김필재	서양누나??...	미드?(진짜? ㅎㅎ)
남호진	나처럼 거짓말 못하는 사람	동생 놀래키기
박기영	웃귀	바지에 오줌 싸기
박정우	매력적인 사람	초코우유 마시기
서혁원	여성스러운 사람(?)	청설모
송권호	심경서	제일여고 2-9 21번
송창민	생일빵 아무지게 때려줄 여자	배그
신성현	착한여자	게임
유재홍	키158인데 160이라고 우기는 사람	내 이상형
이건형	섹시하고 예쁜여자	여자
이동언	비유르~	야구
이동환	너,나,우리	노는 거
이욱률	이쁘고 귀엽고 성격 좋은 여자	나 감당 되는 여자
전광재	키작고 눈 예쁜 귀요미	노래 부르기
전유성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무능한 친구 조롱하기
정유현	파릇파릇(네?..)	기모띠
정창민	연경이	연경이
정희석	키작고 동글이 안경 잘 어울리는 여자	웃
주용민	딱히	고기
채연욱	내 눈에 이쁜여자	배그 잘하는 여자♥
최태영	김유진..(실화..?)	영화보기
추진환	노래잘하는 사람	노래
하용준	멀치에 고깃집 딸내미	밀퐁유 나베
황보정우	강아지상인 여자	티라미수
송태현	???...	검도



김경민:우리 반의 멋쟁이 2인중 또 다른 한명. 다른 사람을 돕거나 챙기는 것을 무척 잘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선 "롤 중이다." "롤 못한다." 등 의 말로 비난을 당하기 일쑤다. 하지만 친구들이 다들 좋아했다.



송창민:우리 반의 대표 광기메이커로 불릴 만 한 친구였다. 항상 밝고 장난끼가 넘쳐났던 친구여서 가끔씩 오해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결국 오래지 않아 진심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반을 빛나게 했던 친구들



유재홍:우리 반의 반장으로써 책임감(?)은... 모르겠지만 우리 반을 이끌어 가고 분위기를 이끌었던 친구임에 틀림없다. 체대입시 학원을 다니며 나름 인생에 대해 진지함도 엿볼 수 있었던 우리들의 반장이었다.



송권호:우리 반의 축구 Ace중 한명이었다. 키도 크고 훈훈한 외모를 소유하고 있고, 보기보다 친구들과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다. 자랑스러운 인생에 대해 진지함도 엿볼 수 있었던 우리들의 반장이었다.



하용준:단연컨대 우리 반의 광기를 만들어 내는 진정한 분위기 메이커 중 한명이었다. 여자친구에 대한 애정이 무지 깊고, 반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광기 메이커라고 할 수 있다.



김필재:이 친구로 말하자면 우리반에 동네북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말해야 할 듯 하다. 하지만 친구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두루두루 친했다. 고등학교 들어와서야 공부 하는 천지 개벽 케이스 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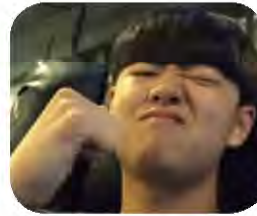
이욱률:운동으로 다져진 다부집. 합기도를 매우 잘 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귀여우면서 잘생긴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다. 요약 소개, 조용한 듯 하지만.... 딱! 남자다.



김민우:항상 훈훈함이 느껴지는 친구. 한편으로는 손오공 같은 특이한 친구다. 자신의 이름 보다는 거의 항상 타인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거의 체념한 상태인 듯 보였다.



전광재:우리 반의 축구 Ace였고 운동 잘 하고 헬스부이기도 했다. 운동에 관해선 다재다능한 재능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만큼의 열정도 가득했다. 체대입시를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



정유현:남자다운 척을 하는 귀요미. 딱 어울리는 표현이기도 했다. 볼을 만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만지면 문드린다. 썸, 쉬는 시간의 분위기 메이커로 귀여운 가오를 부리며 애들에게 달라 붙는다.



주용민:이 친구는 진짜 모델 같은 환상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다. 180이 넘는 키에 길쭉한 다리를 보면 딱 봐도 장난이 아니다 라는 감탄이 나올 정도다. 알고 보니 역시 광기 메이커였다.



채연욱:우리 반의 대표 춤꾼으로 디레탕트에 소속되어 있었다. 쾌활한 성격과 멋진 춤 실력은 어디서든 주목을 끌었다. 반의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재주꾼이었다.



박정우:우리 반의 복학생님 이시다. 처음에는 복학이라는 선입견으로 관계를 걱정했지만 좋은 형, 좋은 친구로서 잘 어울렸다. 대인배 같은 풍모와 자신의 꿈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진짜 형 같았다.



김낙현:우리 반의 범생이 중 하나였다. 물론 공부를 잘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면 잘 노는 것도 공부만큼 되지는 않았다. 의외로 잠이 많은 잠만보 케이스 (Photo by Ryu)



남호진:그냥 보기만 해도 귀여운 친구다. 다양한 친구들과 서로 잘 어울려 지낼 정도로 성격이 좋은데 심하게 동생 놀리기는 등 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서혁원:잘 생긴 친구이긴 하다. 학교에서는 머리가 날라개(?) 항상 그런 건 아닌 듯 하다. 사교성이 좋고 가끔 개그도 치며 분위기를 이끄는 묘한 재주가 있는 친구다



박기영:이 친구는 답이 없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뭐든 그냥 일단 하고 보는 친구다. 실천력 짱이다. 그냥 살 때로 사는 직진의 인생을 사는 듯 보였다.



강태훈:일단 베드민턴을 거의 선수급으로 잘 하는 친구다. 어깨강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넓은 어깨의 소유자로 부러움을 샀다. 어깨만큼 다양한 매력의 소유자다.



이동언:명신고를 대표하는 필통기자였다. 조용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친구라고 평평이 나 있었다. 크흠.. 조용히 생활했지만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여러 활동들에도 늘 참석하는 소리없이 강한 스타일~ 이었다.



이건형:우리 반의 최고 멋쟁이 2인 중 한명이었다. 1년 동안 학교에서 잠만 잘 잤다고 할 정도로 잠에는 일가견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쉬는시간, 점심시간은 귀신 같이 챙기는 신기한 친구였다.

[정리/ 이동언외 명신고 2학년3반 친구들]

[맏칸년맏반] 중앙고등학교 2학년 3반편

교실 공기에서 느껴지는 스웱이 남다르다. 중앙고의 문과 최강 2학년 3반을 소개합니다!

중앙고 최고의 힙스터들로 구성된 3반은 수업시간이 되면 다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정도로 집중해 선생님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는다는데.... 공기에서부터 느껴지는 스웱~마저도 남다른 중앙고의 문과 최강 3반을 소개합니다!



우리 담임선생님, 배영란 선생님
중앙고등학교 첫 부임이셔서 그런지 언제나 우리에게
대한 걱정이 많아 보인다. 담당과목은 사회 문화이며
니긋니긋하고 우아한 목소리로 학생들을 집중시키며
부드러운 수업진행이 특징이다.

대학문은 좁지만
우리는 넓다

나의 이상형&하고싶은 말

이름	나의 이상형은?	하고 싶은 말
1.김다은	서강준 얼굴에 진짜 웃긴 또라이!	썩데기는 가라!
2.김성진	우도환	알맹이는 남고!
3.김예진	섬섬옥수에 굿 보이스~	원투 크르르르~
4.김은서	노래 잘 부르는 굿 덩치	다시 캉캉 bang bang
5.문세휘	착한 사람	도담아 사랑해 ♥♥♥♥♥
6.염성인	섹시한 영앤 리치 톨앤헨섬 조신남	insta : love_my_youth
7.이보은	한사람만 보는 남자	we hit the 북
8.정지현	파란색이 잘 어울리는 남자	sounds like 쿵
9.최수정	공대오빠♥	bonnie and clyde ya
10.최지원	유병재~	짹짹 umm
11.하지윤	구릿빛 피부에 네모난 안경 쓴 남자	이상형 만나게 해주세요.
12.하지은	센스 있는 남자	chilla the young wave~
13.김광원	학교 안 다니는 아름다운 여자	kiff clan, 램잡 화이팅!
14.김민석	내가 어울리는 여자	시.공.중.A+
15.김민창	잘생긴 남자♥♥♥♥♥♥♥♥♥♥	학교 생활 너무 힘들다.
16.김태권	김아랑	다 드루와.
17.박호정	귀엽고 활발한 사람	귀찮아
18.배진호	그냥 이쁜사람	파이팅
19.신준영	정수빈	수빈아 사랑해♥
20.손호찬	너	집가고 싶다
21.오형준	없다	말할게 없다
22.이성준	나보다 하얀사람	참고로 나 흑인
23.이소민	착한 사람	집가고 싶다
24.이호균	없다	말할게 없다
25.정은도	골반 넓은 여자	아 치킨 먹고 싶다
26.정중훈	나보다 똑똑한 사람	진주 영미 파이팅!
27.최동근	착하고 귀여운 사람	집에 가고 싶다 미면:

우리반의 멋진 친구들!



김태권:3반에서 체육부장을 맡고 있는 친구로 이름부터가 남다르다. 운동신경이 매우 뛰어나 운동이라는 운동은 다 섭렵했으며 별명 또한 태권이다. 특히 배구를 굉장히 잘해 중앙고의 배구부 부장을 맡고 있다. 체육시간마다 하이킥을 한편씩 찍는 수준이다.



배진호:눈빛이 사나워서 대다수의 친구들이 다가오기 어려웠다. 하지만 웃음이 많고 장난기도 많아 첫인상과 본래 성격은 정반대라는 의견이 많다. 탈 한국적인 색시한 구릿빛 피부로 가졌으며 사랑보다 는 의리를 중요시 여기는 이 시대 마초남의 표본이다.



이소민:중앙고 후문 바로 앞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서 버스로 등교하는 중앙고 친구들의 어려움을 한몸에 받는다. 탄탄한 어깨와 우월한 기력을 가졌으며 틈 날때 마다 라이딩을 즐기는 상남자다. 하지만 부끄러움이 많아 관심이 집중되면 얼굴이 빨개지는 순진한 모습을 보인다.



정은도:헤어디자이너를 꿈꾸는 친구로 가방에는 시력교정용 렌즈가 한가득 들어있다. 틈만 나면 거울을 봐서 왕자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을 정도다. 또 점심시간에는 끊임없이 디저트를 먹는 미식가이자 중앙고 매점의 최고 VIP이다.



김민창:3반에서 보기 드문 개그캐릭터로 반 친구들의 웃음을 담당하고 있다. 힙합과 랩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굉장하지만 실력은... 일본어 첫 수업 시작과 함께 일본 이름을 '이조야' 라고 지었는데 '이조야군' 이라고 불러주면 굉장히 좋아한다.



이성준:평문 중앙고의 노래동아리 부장이자 최강3반의 부반장이다. 일본어 수업시간, 이름을 '마쓰야마' 라고 짓고 '마쓰야마군' 이라 불러주면 굉장히 좋아한다. 들으면 누구든지 녹여버리는 염산 같은 목소리를 가졌는데 일각에서는 눈매가 소지섭을 닮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손호찬:틈날 때마다 노래 가사를 쓰고 작곡을 하는 고상한 취미를 가졌으며 음악에 일가견이 있는 예술가다. 자칭 아티스트답게 틈만 나면 사색을 즐긴다. 겉보기에는 무뚝뚝하지만 속은 정말 여리고 정이 많은 캐릭터다.



신준영:체육시간에 체육부장과 함께 배구공 점유율 TOP3를 달리는 친구다. 무서워 보이지만 수줍음이 많고 과묵하다. 또 친구의 말을 끝까지 믿는 순진무구한 성격이라 잘 속는다. 그리고 예쁜 여자친구(수빈♥)이랑 연애편지다.



김예진:나긋나긋하면서도 파워풀한 목소리로 중앙고 방송부에서 아나운서와 부장을 맡고 있다. 그 외에도 매력이 흘러넘치는 친구다. 폭 부러지만 허당미 또한 넘친다. 그 매력을 알아보는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인기짱이다.



김다은:최강3반을 책임지는 반장이다. 긍정적인 성격과 뛰어난 노래실력을 자랑한다.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는 사교성이 돋보인다. '이조야군' 과 함께 붙여 다니며 '쿠미코' 라 불리고 있다. 셀카 보다 실물이 훨씬 낫다는 후문이 있다고 한다.



최지원:중앙고 모델부의 간판으로 항공사 승무원을 꿈꾸는 친구다. 오목조목하고 예쁘게 생긴다 시크해보이지만 장난기가 많다. 지난해 중앙고 축제 때 레드 수트를 입고 멋진 위킹을 보여줘 수많은 여덕들을 심쿵사 시킨 우리반 걸크러쉬의 대명사다.



염성인:토론동아리 '하브루타' 의 부장으로 중학교때부터 별명이 '아카리 파이터'였을 정도로 입담이 화려하다. 매일 30분 일찍 등교해 교실에서 그 카페인 음료수를 마신다. 인스타그램 중독 말기 판정을 받은지 꽤 되었으며 1일 1게시물을 실천하고 있다.



정지현:사진동아리 '찰나'의 부장을 맡고 있으며 자신의 감성을 담아낸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영어이름은 Eliza(이라이라). 웃는 모습이 '아오이유우'를 닮은 듯 안 닮은 듯하다. 친해지면 정말 ☆매☆력☆적☆인 친구. 귀여운 외모로 모두의 사랑을 받는다.



이보은:큰 눈망울과 오뎅한 코날이 특징. 분위기 있고 이국적인 미모를 가진 잠꾸러기 수줍은 친구다. 실제로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자신은 그 사실을 극구 부인한다. 까도 많은 친구. 매력적인 웃음, 잘 세팅된 앞머리와 긴 속눈썹, 매끈한 피부가 이 친구의 트레이드 마크다.



김은서:공부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적이 잘나와 의문점이 많은 친구다. 실제로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자신은 그 사실을 극구 부인한다. 까도 많은 친구. 매력적인 웃음, 잘 세팅된 앞머리와 긴 속눈썹, 매끈한 피부가 이 친구의 트레이드 마크다.

[동네투어] 진주 평거동 투어

평거동! 우리들이 갈 만한 곳, 어디야 어디?

이번 호에서는 진주의 대표적인 변화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과 학원이 밀집 지역으로 시내만큼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평거동을 둘러보았다. '있을 거 다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있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평거동.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어 청소년들만의 핫플레이스들을 찾아보았다. 한 번 둘러 보시다!



공영 자전거 무료 대여소

◎진주시 남강로373번길 3 (평거동 794-2)

운영시간은 3월~11월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10월~12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휴관일은 설, 추석 명절만 쉰다. 자전거는 1인당 1대, 1회 4시간 이내만 이용할 수 있고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확인을 하고 인적사항 작성 후 이용이 가능하다. 자전거 무료 대여 앞이 바로 진주 남강변 자전거 전용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다.



진주문고 평거점

◎진주시 진양호로240번길 8(평거동 193-3)

평거동에 산다면 아마 이 곳에서 책을 살 것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리뉴얼이 4월 15일부터 1,2,3 층 모두가 정상화되었다. 전보다 더 새롭고 쾌적한 진주문고를 만나볼 수 있다. 진주문고가 리뉴얼되면서 변경된 이용 수칙이 있다.



-서점 고객은 1층 출입구를 통해 내부계단을 이용해주십시오.
-해당 분야 도서 문의는 각 층 직원에게 해주십시오.
-계산은 1층 카운터에서만 합니다.

진주문고는 청소년들이 그저 문제집을 사러 들어가는 서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생활을 경험하는 일상의 복합문화공간이다. 운영시간은 매일 10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다. 3F 문학인문(예술·과학)·2F 청소년(학습·수험·여서재(문화관))·1F 아동(생활·잡지·문구(준비중))·진주커피(준비중)

참숯굴 건강랜드

◎진주시 진양호로 227(평거동 146)

어린이 전문도서관 도서관

◎진주시 평거로 46 (평거동 761)

어린이 교통·청소년 모험공원

◎진주시 평거동 695-168 (경상남도 진주시 삼계로 531)



남도 세프

◎진주시 남강로 309번길 42-17 3층 301호(평거동 913)

도코식당

◎진주시 새들말로 68번길 5-8 (평거동 985)

실내양궁, 슈팅존

◎경남 진주시 순환로 520 2층 (평거동 788-2)

실내양궁 게임장.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것이 양궁인데 어릴때 한번쯤은 누구나 활쏘기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것이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물론 바람은 불지 않는 실내지만 그 꿈을 한 번 이루어 보자. 가격은 평일과 주말이 다르다. 평일 20발 5000원, 20발(초·중·학생) 3000원, 40발 9000원, 60발 12000원, 주말 15발 5000원, 30발 9000원. 가족들과 함께 가도 즐거운 경험이 될 듯 하다.



오송 락볼링장

◎진주시 평거동 903번지(순환로 539)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볼링장. 일반 볼링장과 달리 클럽 같은 분위기의 볼링장이다. 포켓 당구도 칠 수 있고, 커피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이 구비되어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새벽 2시, 주말에는 새벽 3시까지다. 이용료는 한 게임 당 4500원이다. 가격은 다른 볼링장보다 살짝 비싸지만 한 번쯤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평거볼링센터

◎진주시 진양호로 257(평거동 7-1)

평거 볼링장의 가장 큰 특징은 볼링장의 전면(앞면)이 모두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도 실내의 볼링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있어 항상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밤 12시 이후에는 회식 등의 뒤풀이로 오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락볼링을 운영하기도 한다. 락볼링은 볼링장을 클럽과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서 독특한 조명 속에서 유쾌한 음악을 들으면서 볼링을 즐기는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볼링문화이다.



시티코코 왕발통

◎진주시 신평공원길 53-1(평거동 755-15)

평거동에는 시티코코와 왕발통을 대어해 주는 곳이 있다. 지나다니는 왕발통을 보면서 누구나 한번쯤 타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왕발통은 평일 10,000원, 주말 15,000원 (1시간) 시티코코는 평일 12,000원, 주말 15,000원 (1시간) 이다. 안전모 등 안전 장치 착용하신 후 1시간 동안 즐겁게 고고~~~



남강 습지원

◎진주시 남강로373번길 3 (평거동 794-2)

수자원 공사 아래에 위치한 진주의 자랑거리 평거동 습지원!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이곳은 남강로를 따라 진양호 가는 방향으로 쪽 올라오다 보면 표지판이 보인다.



습지원 입구부터 진양호 댐 앞까지 이어진 이 산책로는 강 쪽으로는 보행자를 위한 길이, 도로 쪽으로 자전거를 위한 길이 있다. 구석구석 돌아보며 발품을 파는 것이 제대로 습지원을 즐기는 법이지만 습지 안으로 난 흙길을 걷기 싫다면 깔끔하게 포장된 산책로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걸어서 구경하는 것이 좋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강추할 만하다. 습지원 옆에는 자전거 보관대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가 마련되어 있다. 습지원 안에는 습지를 구경하며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탐방로와 같은 산책로가 있는데 나무로 된 다리, 크고 작은 돌로 덮인 길 등 자연과 어우러진 풍경이 계속 이어진다. 따스한 어느 봄 날, 습지원의 새로운 모습을 보러 함께 떠나 보면 어떨까.

평거동 놀숲

◎진주시 순환로 541 지원빌딩 5층 (평거동 902)

놀숲은 체인점으로 진주에는 경상대점, 평거점으로 2곳이 있다. 이용방법은 다른 만화카페와 같은 방법으로 신발을 갈아 신고 사용시간 만큼 후불로 계산을 하는 방식이다. 기본 한시간은 2400원이고 그 외 다양한 정액제가 있다. 놀숲은 진주 만화카페 중 가장 만화책이 많다. 만화책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소설과 잡지를 편안하고 폭신한 소굴방과 다다미방에서 즐길 수 있다. 소굴방과 다다미방은 구석진 공간으로 이루어져 주변 눈치 보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보드게임도 준비되어 있어 너무 시끄럽지만 않으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신세계 실내수영장

◎진주시 평거로 57(평거동 191-1)

들말 흥한 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실내 수영장이다. 요즘 대도시의 고급 아파트내에는 수영장을 포함한 대규모 휘트니스센터 등의 주민편의 시설을 함께 만드는 경우가 많다. 진주에 오래전부터 아파트 단지내 수영장이 있었다니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신안동 일대 한 복판에 수영장이 있으니 해당 흥한 아파트뿐 아니라 주위아파트 주민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편리할 듯 하다. 레인 수는 총 5개이며 작지만 유아전용풀도 한켠에 마련되어 있다. 이용 요금은 성인 5000원, 중고생 4500원, 어린이 4000원이었다. 한 달 요금은 성인 95,000원, 중고생은 85,000원이다. 매월 4째 주 수요일이 휴일이라는 점을 유의하자.



왜, 선거는 19금?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요즘 거리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지방선거가 몇일 남지 않았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선거권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선거권은 헌법이 제정된 1948년엔 만21세였다. 그 후 1950년에 20세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후 무려 54년이 지난 2005년 겨우 현재의 만 19세가 되었다. 만19세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당시 여당과 야당이 만20세와 만18세를 놓고 싸우다 타협해서 만 19세가 된 것이다. 선거연령 만18세 하향논의는 선거때면 늘 반짝하고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패턴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

2014년 4월, 19세 미만은 투표할 수 없고 선거운동도 정당가입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현재 합헌 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만19세 미만은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어느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민주시민으로서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다.' 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이미 고등교육을 받고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직장 다니는 나이의 사람들을 정치적 판단이 미약하다, 보호자에 의존한다라는 논리는 공색해 보인다.



주민증, 결혼, 군입대, 공무원시험, 세금납부 OK! 선거권은 NO!!

그런데 왜 만 19세를 고집하는 것일까? 가장 큰 것은 정치적인 이유다. 법을 만드는 여당과 야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하기 보다는 어떻게든 자신들의 유희를 먼저 계산하는 우리 정치의 현실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거기다 고등학생은 여전히 보호를 받아야 할 미숙한 존재로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도 한몫하고 있을 듯하다.

그런데 이런 선거법의 만19세 기준이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과는 기준이 다르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민법상 미성년자기준도 얼마전까지 20세로 되어 있다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세에서 19세로 바뀌었다. 법마다 성인의 연령기준이 달라 굉장히 혼란스러운게 사실이다. 병역법에서는 만18세 이상이 징집대상이고 공무원법에도 임용기준을 만18세로 하고 있다. 그 밖에도 만18세가 되면 결혼과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며 만17세부터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처럼 다른 법률에서는 대부분 만 18세 이상을 대한민국

선거권은 없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기준 232개국 가운데 92.7% 정도(215개국)가 선거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OECD34개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만 유일하게 만 19세다. 일본은 지금 만 18세로 개종중이니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된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아르헨티나는 2012년 선거권 연령

을 만18세에서 만16세로 낮추었고,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 등에서도 18세를 만16세로 낮추는 논의를 벌이고 있다. 뉴질랜드와 스위스는 특별히 지방선거는 만16세 이상으로 정했고 독일의 일부 주에서도 지방선거연령은 만16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도 똑같이 주어져 독일에서는 19세 국회의원도 배출되기도 했고 미국에서는 고교 3년생이 시장선거에서 현역 시장을 누르고 당선되기도 했다.

학생은 교육의 수혜자고 주체. 교육감선거에는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선거권이 만18세로 낮아진다고 해서 현재 고3 학생들이 모두 투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고3중 일부다. 선거시기에 따라 생일을 지났느냐를 따져야 하는데 8세에 입학한 경우에 생일이 지난 학생들이 대상일거구요. 7세에 입학한 학생들은 아예 제외가 된다. 실제 고3학생의 비율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있는 것 같다. 청소년 선거권을 두고 중요한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인데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학생들의 의견들도 있지만 투표권이 없으니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덜 가지는 것이라고 선거연령이 낮춰져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다.

더구나 교육감선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한 교육의 직접 수혜자고 주체중 하나인 학생들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반응도 있

다. 다른 선거는 몰라도 교육감 선거는 학생들의 참여와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할 것이다.

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보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와 참여의 중요성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교육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선거철이다.



[필통 편집국]

청소년문제는 참정권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불행하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도 인권도 유보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충동을 경험했고 나이가 들수록 '돈'을 행복한 가정의 조건으로 꼽는 나라. '2016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조사 대상인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초등학교생의 17.7%, 중학생의 22.6%, 고등학생의 26.8%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주소다.

체벌(폭력), 두발 및 복장규제, 강제 야자 및 보충, 상벌점제...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 을 비롯한 인터넷·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고위험군에 속하는 초등학교생이 16.3%에 이르며, 아동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도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아동(6~17세)의 경우 77.4%가 입시과목 보충을 위한 민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32만2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부재가 만든 결과 때문이지만 학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를 고수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보장 받는 길은 없을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9살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독일·뉴질랜드·스위스의 일부 주와 오스트리아는 16살부터 투표할 수 있고, 미국·영국·프랑스 등 나머지 나라들은 18살이 기준이다.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이웃나라 일본은 젊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2015년 6월 선거연령을 20살에서 18살로 낮췄다. 1945년 여성 참정권 실현과 함께 25살 이상이었던 연령 기준이 20살 이상으로 낮춰진 지 70년 만의 법 개정이었다.

독일에는 22살 청소년이 현직 국회의원이다 "청소년 인권도 어른들의 인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만 참여하고 스스로 바꿔야죠. 불평만 하지 말고 참여하자는 것이 제 정치 슬로건입니다." 그의 말이다. 청소년 선거연령을 낮추자면 '교육현장의 정치화'라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를 보고 뭐라고 변명할까?

학교폭력을 비롯해 두발이나 복장까지 규제당하는 인권침해의 현장 학교, 새벽같이 등교해 하루 10시간 이상 체형에도 맞지 않는 딱딱한 의자에서 시험문제풀이로 나날을 보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소년 선거연령의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추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지금의 청소년문제가 적어도 그대로 방치되는 일은 없을 것이 확실하다.

경남도 학생노동인권조례 부결 누가 청소년들의 권리를 빼앗나?

학생 노동인권교육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부결되자 후폭풍이 거세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조례안을 부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질의·토론 과정에서 노동 관련 사무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점, 조례 내용에 현재 정부가 하는 유사 사업과 겹치는



점을 들어 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학생 노동인권 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노동인권 교육주간 운영 △고등학교 학년당 연간 1시간 노동인권 교육 등이다. 학생 노동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노동인권 문제해결능력을 높여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경남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학생 노동인권교육조례안은 청소년과 학생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서울시 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지수(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면서 "조례명에 '노동', '인권'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일부 단체에서는 동성애 찬성 교육, 가출할 권리 등을 가르칠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으로 반대를 했으며, 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부결됐다"며 안타까워했다.

[필통숲] 진주청소년 익명게시판

다이소에서 똥썩, 내 친구를 구하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겪은 황당했던 사건 하나를 필통 숲에서 외치고자 합니다. 얼마전 제 친구와 롯데리아를 갔다가 중고생들의 핫플레이스 근처 다이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전부터 제 친구는 계속 똥마렵다는 얘길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를 이끌고 다이소로 들어가 장난감코너로 향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 뒤에는 아주머니 한분이 계셨고 그냥 저희는 아무렇지 않게 장난감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기한 장난감을 보고 '우와~'를 연발하며 구경하기 바빴습니다. 근데 순간,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명, 바로 똥냄새였어요. 단연컨데 완전 똥냄새였습니다.

제 시선은 곧바로 바로 함께 간 친구를 향해 수박에 없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친구의 표정은 필시 영혼이 나간 상태, 속된말로 누렇게 뜬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똥마렵다고 막 소리치던 친구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싶었습니다. '아...내가 지렸구나...' 친구의 장 상태를 배려하지 못

한 스스로를 자책하며 다이소에 퍼지는 똥냄새 사이에서 약간의 멘붕상태가 왔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 저는 친구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만 가자'고 말하며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친구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 진짜 지렸구나' 어쩔 줄 모르고 심각해 하는 그 순간, 점원이 급히 저희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까? 고민할 겨를도 없이 친구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친구의 손을 잡고 다이소를 뛰쳐 나갔습니다. 영화의 탈출 장면 처리가라 할 정도였습니다.

한 참을 달린 후, 그 친구가 손을 뿌리치며 씩습니다. 숨을 고르고 저는 진지하게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대답 잘해라. 난 니 비밀 지켜줄 수 있다. 니 아까 거기서 똥 지렸지?' 제 목소리에 친구를 구했다는 으스스함이 함꼐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웬일? 그 친구는 갑자기 인상을 쓰며 황당한 표정을 짓고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구요. 제가 괜찮다고 솔직히 말해도 된다면



재차 물으니 자긴 또다시 펄쩍 뛰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뒤에 있는 아주머니께서 심한 방귀를 끼신 겁니다.ㅠㅠ

사실을 알고 나니, 그 다이소에서 무작정 무엇에 홀린 사람마냥 남학생 둘이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고 점원들과 주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을까? 별 이상하고 민망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전 또 당장 냄새만으로 친구를 의심이나 해 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친구아~ 그래도 난 그 순간, 너를 구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선택을 한거란다.' 뒤에 생각해보니 만약 그때 친구에게 안 물어봤으면 전 그 친구를 영원히 '다이소에서 똥 지린 애'로 인식할 뻔했습니다.^^

필통숲에 사연을 올려 주세요

신문지면에 채택된 분께는 문상을 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필통숲>으로 오세요. 진주 청소년, 필통 독자들만의 대나무 숲입니다.

어떤 얘기라도 좋습니다. 함께 웃고, 공감하고, 화내고, 욕하는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신문 지면으로 옮길 수 있는 내용 중 채택된 사연에는 소정의 원고료(문화상품권 1만원)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웃음 만발 사연, 황당했던 에피소드, 아주 특별한 경험, 분노 유발 사연은 물론 부조리에 대한 고발과 제보도 함께 합니다.



31만원 사기, 뭘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안녕 친구들! 난 M고에 재학중인 학생이야! '필통숲'이 우리들의 익명게시판이란 소릴 듣고 이번에 난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

때는 작년 9월달 이야기야.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을 실수로 번거에 빠뜨려서 완전 먹통이 되버린거야! 번거로 빨리 들어가는 내 폰을 눈앞에서 보는 느낌이란! 순간 슬로비디오처럼 느껴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고치려니까 돈이 적잖게 들길래 어

짜피 조금 낡은 폰이기도하고 바꾸고 싶었던 마음도 있어서 맘 속으로 '이번 참에 바꿔버리자' 그리 스스로를 위안하며 '중고나라'에 원하는 휴대폰을 검색하러 들어갔어.(부모님이 휴대폰 관련해서 전액 지원을 안 해주셔서 새 폰은 비싸서 못산다는 슬픈 사연이ㅠㅠ).

찾아보면 중에 거래기록도 분명 있고 또 판매글을 블로그에도 올려서 팔고 있었어. 실제로 그 블로그와 카페 글에서 판매자인 본인이 현재 장사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대리점도 찾아

보니 실제로 있는 거야. 그 정도면 의심할 수 없었어. 그래서 믿고 돈을 보냈지. 새 폰을 받고 사용할 거란 행복한 상상을 하며 거래를 마쳤지. 아 뽕싸, 근데 이게 웬일이야. 웬걸 계속 답도 없고,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불안한 맘이 들었고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지. 결국 카톡 탈퇴에 중고나라에 사기글까지 올라 왔길래, 그제서야 사기당한걸 깨달았지(내 돈 31만원ㅠ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중국에서 전문적으로 사

기 치던 놈들이더라구.. 진짜 허무했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돈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일이란걸 누구나 알잖아. 그렇게 끝나 했는데 어쩌다가 피해자들 모여 있는 단체에 저도 초대되게 되었죠. 근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지. 그 피해자들의 대표가 실제 그 통장주인을 알아내서 협상을 했다고 했어. 결국 그 분 덕에 그 피해자들 방에 있는 사람들(나 포함)은 사기당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어.

운이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이상하지 않



아? 아무리 본인 통장으로 사기를 쳤다 해도 적은 돈도 아닌데 다시 돌려줬다는 것이... 6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었는데... 그래도 돌려받아서 다행이지! 대부분 중고거래 사기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 알지. 다른 친구들도 사기 당하지 않게 모두 조심해! 절대 절대 확실하지 않은데 돈 먼저 보내지 말자.

[취재:정리/ 김민수(명신고)기자]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내 친구 명신고 영지~를 소개합니다

명신고 2학년 전영진



Q.장래희망은 무엇인가요?
A.아... 저는 아직 장래희망을 제대로 고민해본 적이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Q.자신의 성격을 정의한다면?
A.친구들한테 성격이 좋다는 말을 자주 듣고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고집이 좀 센편이죠.

Q.2017년을 어떻게? 또 2018년을 어떻게?
A.2017년은 공부를 게을리 한 거 같아서 올해는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라는...

Q.혹시 학교에서 맡은 일?
A.선도부위원으로 활동중이고 저희반에선 부반장의 중책을^^

Q.가장 행복했던 때?
A.중3때요. 체육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3-1 사랑해)
Q.자신의 별명은?
A.영지라고 불러요.
Q.전영진 하면 떠오르는 것은?
A.대박할인마트요. 청소년여러분 담배사지 마세요!

단답형 시작! 5초안에 답 못하면 넘어가요!



Q.여자친구 있어요?
A.네
Q.예뻐요?
A.네 삼현답이예요.

Q.신체에서 자신 없는 부위는?
A.손이 작아요.
Q.롤모델 있어요?
A.자고에 다니는 제 친구요.
Q.필통신문에서 제일 재밌게 읽는 코너는?
A.맷강년맷반.

SNS에서 핫한 게임! 밸런스게임 시작!
물 중 하나를 선택한 후 그 이유를 말해주시면 됩니다.

Q.중앙고VS동명고
A.중앙고 '놀러갔는데 재밌어서'
Q.여자친구 더 끌린다? 얼굴VS성격
A.성격이요. '얼굴도 예쁜데 성격도 예쁜 것 같아요.'
Q.여자친구랑 사귀면서 연락 안하기 VS 친구들이랑 놀면서 게임안하기
A.후자요. '연락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사랑해~)'
Q.고려대학교VS연세대학교
A.고려대학교 '이름이 멋있어요.'



누구에게나 만천하에 자랑하고 싶은 멋진 친구가 한명쯤은 있죠. 이번 달 '내친소'의 주인공은 사랑스럽고 통통 튀는 성격으로 많은 친구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여고생 '솔이'입니다. [필통을 통해 소개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필통홈페이지나 카톡(feeltong1318)으로 신청해 주세요]

꼭 하고 싶은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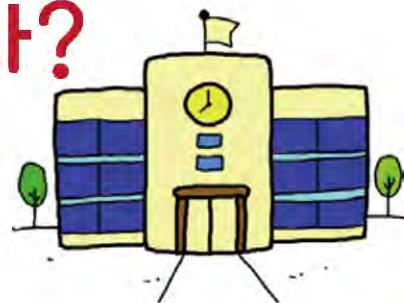
"먼저 중앙중 친구들에게. 평생 만나자 애들아~ 우리 다윗중 친구들에게. 요새 다윗 못 갔는데 자주 갈게. 가면 제발 인사 좀.. 지금 2학년2반 친구들에게. 수학여행 조지자~ 주용이는 이거보면 참 한 번 취주고... 마지막으로 여자친구에게. 보배아~ 사랑해. 여름에 놀러가자~^^"

[취재/ 정민규(동명고2)기자]

[우리 학교에만 있다] 진주고, 대아고편

선생님과 하이파이브? 교실과 베란다?

‘학교’ 어떻게 보면 다른 학교를 다니지만 어느 학교나 모두 비슷비슷한 모습이고 학생들도 거의 별다르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낸다. 교문, 교실, 운동장, 책바퀴 돌 듯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고 급식소에서 밥을 먹는다. 운동장에서 뛰어 놀기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한다. 어느 학교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들이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무엇이 있을까? 필통에서는 각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무언가를 알아보기로 했다. ‘우리학교에만 있다’ 이번호에서는 대아고와 진주고 기자들을 통해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의 ‘그것’을 찾아보았다.



진주고등학교에만 있다

전교생, 선생님과 High-Five



전교생이 하이파이브를 한다?

하이파이브는 두 사람이 손뼉을 공중에서 맞 부딪치는 것으로, 직접 High five하고 말하거나 Give me five라고 하고 하는 게 대부분이다. 명칭의 유래는 한 손에 손가락이 5개라 하이파이브가 됐다. 그러므로 양손으로 하이파이브를 할 땐 High ten이라고도 한다. 기원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확실한 건 미국 스포츠에서 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진주고에서는 아침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선생님들이 빠짐없이 나오셔서 즐거



운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하이파이브’로 학생들을 맞이한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정도 쌓고 서로 기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는 진주고등학교만의 아주 특별한 행사다. 바로 ‘High-Five day’ 행사다.

진주고는 어쩔 수 없이라도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생들은 학생대로, 스승과 제자가 모두 얼굴을 보고 손바닥을 마주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른 아침 힘들지만 학생들을 생각해서 교문앞에 나서시는 선생님들의 정성이 대단하고 감사할 일이다. 진주고의 새로운 전통이고 행복한 학교를 위한 노력이라 하겠다.

학생회 주최, 작은 음악회



문화예술의 도시 진주. 그 중심에 명문 진주고가 있다고 외칠 만큼 진고에는 아주 특별한 음악회가 진고인들과 항상 함께 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석식시간. 운동장 중앙의 연단에는 흐르는 음악선율에 이끌리듯 많은 학생들이 모여든다. 바로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진고의 <작은음악회>다. 진고 학생들의 끼와 흥을 뽐내고 공감하는 특별한 시간이다. 무대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랩, 노래, 춤 등 다양한 끼를 발산하는 학생들이 올라 박수와 환호를 받고 공부에 지친 친구들에게 재미와 위로를



주는 시간을 선사한다.

단순히 노래나 춤공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다양한 기획을 통해 학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주기도 한다. ‘북면가왕’ 컨셉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은 지켜보는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공연 중간 중간 과자랑 문화상품권을 나눠주는 이벤트로 열어 진고 학생들이 목요일을 기다리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진고의 ‘작은 음악회’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 노는 만능 진고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한다.

대아고등학교에만 있다!!

매년 전교생이 참가하는 20Km이상 행군!



매년 장거리 행군을 하는 학교가 있다?

행군은 왠지 학생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 같다. 정확히 따져보면 행군은 군사용어다. ‘작전상의 목적과 요구에 따라 도보 또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부대 이동’을 일반적인 행군의 정의다. 대아고에서는 매년 선생님과 함께 전교생이 20킬로가 넘는 거리를 함께 걷는 행사를 빠짐없이 진행하고 있고 대아고만의 오랜 전통이 되었다.

이렇듯 대아고에서는 1968년부터 시작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 정신을 기리는 행사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걷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열중대로 정렬한 전교생 1000여명과 모든 교직원이 보통 20~25km 정도 걷는데, 매년 코스가 약간 변경되어 걷는 거리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2017년 경우엔 교직원 및 동문 100여명과 재학생 1049명이 참가했고 학교 교정을 출발해 남강댐 탐방, 남강변 에나길 순례, 진주성 계사순의단 참배 등 총 21km를 완주하는 코스였다. 각 학년의 학급마다 기수들이 있어 깃발을



들고 행군을 하는데 학년마다 깃발의 색깔이 다르다. 3학년은 파란색, 2학년 초록색, 1학년 빨간색으로 신기하게도 학년별 명찰의 색과 동일하다. 복장은 많은 활동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복(준주복)으로 똑같이 통일된다.

평소 이른바 ‘택시운전사’라고 놀림 받던 대아고 교복도 끝없이 펼쳐진 행군 대열속에서는 무척 근사해 보인다. 행군이 끝나갈 때쯤 진주성 안에 있는 순의단에서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들을 기리기 위한 묵념이 진행된다. 이때 기수들이 계단 각 층에 올라 깃발(오민기; 대아고 교기)을 45도로 들어 올리는데 행군의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멋진 장면이 연출된다.

학교에서 왜 행군이나? 뭐 고생이나? 이런 저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학년초에 낯선 친구들과 같이 땀 흘려 행군을 하고 나면 학년초 서먹했던 교실 분위기가 반전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어찌됐던 전교생이 매년 행군을 하는 학교는 아마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대아고만의 전통이다.

교실마다 베란다가 있다?



매년 장거리 행군을 하는 학교가 있다?

행군은 왠지 학생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 같다. 정확히 따져보면 행군은 군사용어다. ‘작전상의 목적과 요구에 따라 도보 또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부대 이동’을 일반적인 행군의 정의다. 대아고에서는 매년 선생님과 함께 전교생이 20킬로가 넘는 거리를 함께 걷는 행사를 빠짐없이 진행하고 있고 대아고만의 오랜 전통이 되었다.

이렇듯 대아고에서는 1968년부터 시작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 정신을 기리는 행사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걷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열중대로 정렬한 전교생 1000여명과 모든 교직원이 보통 20~25km 정도 걷는데, 매년 코스가 약간 변경되어 걷는 거리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2017년 경우엔 교직원 및 동문 100여명과 재학생 1049명이 참가했고 학교 교정을 출발해 남강댐 탐방, 남강변 에나길 순례, 진주성 계사순의단 참배 등 총 21km를 완주하는 코스였다. 각 학년의 학급마다 기수들이 있어 깃발을



들고 행군을 하는데 학년마다 깃발의 색깔이 다르다. 3학년은 파란색, 2학년 초록색, 1학년 빨간색으로 신기하게도 학년별 명찰의 색과 동일하다. 복장은 많은 활동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복(준주복)으로 똑같이 통일된다.

평소 이른바 ‘택시운전사’라고 놀림 받던 대아고 교복도 끝없이 펼쳐진 행군 대열속에서는 무척 근사해 보인다. 행군이 끝나갈 때쯤 진주성 안에 있는 순의단에서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들을 기리기 위한 묵념이 진행된다. 이때 기수들이 계단 각 층에 올라 깃발(오민기; 대아고 교기)을 45도로 들어 올리는데 행군의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멋진 장면이 연출된다.

학교에서 왜 행군이나? 뭐 고생이나? 이런 저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학년초에 낯선 친구들과 같이 땀 흘려 행군을 하고 나면 학년초 서먹했던 교실 분위기가 반전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어찌됐던 전교생이 매년 행군을 하는 학교는 아마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대아고만의 전통이다.

[현장취재] KBS 도전 골든벨 녹화 체험기

진양고등학교의 '빛나는 도전, 도전! 골든벨'



도전 골든벨은 1998년 KBS1TV <접속! 신세대> 프로그램이 그 처음이다. 10회차때 <골든벨>코너가 시작되었고 포맷의 변화를 겪으며 인기를 얻었다. 1999년에 현재처럼 학생들이 앉아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이후에 KBS2TV의 독립프로그램으로 방송하게

되었다.

도전 골든벨은 단순히 퀴즈 게임에서 일등을 뽐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의 재치와 생각, 가치관과 문화 따위를 알아보는 청소년 프로그램

이다. 슬로건은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도전 골든벨"이다. 이를 복창함과 동시에 프로그램이 시작되며, 초창기에는 "부정의 정답보다 양심의 오답이 진정한 명예다, ○○○고등학교, 나가자!"를 외쳤다.

진양고는 작년 10월 촬영예정이었으나 KBS 파업으로 연기되어 지난 4월 13일 촬영이 진행되었다. 미리 낸 신청서와 3월 23일에 있었던 사전 오디션을 거쳐 선정된 100인이 50문제에 도전했다. 진양고편은 5월 13일 방송 예정이다.

방송 녹화의 생생한 현장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촬영이 진행됐다.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동안 쉬어가며 촬영했고, 오래 앉아있는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짬이 생길 때마다 다리를 펴게 했다. "다리가 아파서 탈락하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래 양반다리를 하고 있어야 했지만 카메라의 힘 덕분에 인지 큰 불평은 없었다. 리허설 때는 오프닝 멘트를 연습했고, PD들은 크고 길게 환호하고 반응이 커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몇 명에게는 미리 인터뷰 내용을 알렸고, 현장에서 재밌는 답이나 특이한 답판을 쓴 친구들은 즉흥적으로 인터뷰했다. 답을 지우거나 옆을 힐끗거리는 학생들은 답을 맞혀도 오답처리하며 "당당하게 틀리자"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떨어지는 친구들을 보며 짜여진 각본이 아니냐며 묻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실수든 실력이든 제작진과의 상의는 없었다.



방식, 명찰 케이스, 명찰 종이, 화이트보드, 번호판 버튼, 지우개, 보드마카는 리허설 당일 제공한다.



촬영이 끝난 뒤에는 화이트보드, 모자, 보드마카를 기념품으로 준다.

<촬영 현장 엿보기>



아나운서가 등장하자 모두가 자동으로 박수를 쳤다. 놀랄 일이 아니었다. 박소현 아나운서는 부끄러운 듯 웃으면서 왜 박수를 치냐고 했고, "얼굴이 너무 잘해서요.", "너무 예뵤요"라는 대답에 쑥스러워 하면서도 뿌듯해 하는 모습이였다.

<모자부터 명찰까지 디테일한 셋팅!>



모자는 거꾸로 써야하며, 구멍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핀 버튼, 왼쪽에는 명찰케이스를 단다. 모자를 쓰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게 신기했다. 빈 명찰종이에 못 쓰는 글씨를 직접 쓰고 있거나 출연자들의 글씨에 감탄할 수 밖에 없었다. 나만 악필인가!

<응원 플랜카드 만들기>



플랜카드를 만들라는 말에 학교에선 난리 아닌 난리가 났다. 미술에 재주가 있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학생들이 제출한 플랜카드 몇몇은 수정을 했고, 학교 플랜카드를 제작하며 양과 질을 모두 올렸다. 물론, 기자의 플랜카드는 미술 학도들의 손이 닿지 않아 엉성하다..



최후의 2인 잠깐! 인터뷰

최후의 1인을 공개하면, 방송을 보는 재미가 없어질까 걱정되어 최후의 2인과 인터뷰를 가졌다. 최후의 2인 37번 신다는 학생!

Q. 최후의 2인이 되었는데 소감은?

어...ㅋㅋㅋ 일단 최후의 2인이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같은 생각들을 했고 믿을 수 없었다. 촬영하기 전, 교실에서 친구들끼리 유령이나 하와이가면 선물 사오라고 농담을 주고받고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될 줄 꿈에도 몰랐다.

Q. 문제를 잘 풀 비결은?

딱히 비결은 없는 것 같다. ㅋㅋㅋ 촬영 전날 밤, '그래도 인생에 딱 한번 있을까 말까한 골든벨 촬영이니 준비는 좀 해야 되지 않겠어?' 하고 학교에서 나눠준 예상문제들을 꺼냈다.(물론 대부분 여기서 출제되지 않았다.) 근데 2번째 페이지를 보다 잠이 들었고, 그렇게 촬영에 임했다. 준비를 열심히 한 다른 아이들이 아닌 내가 2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운과 많은 친구들의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Q. 나에게 골든벨이란?

골든벨은 대입을 위해 지금껏 달려온 나, 그리고 친구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1교시부터 8교시, 그리고 아자까지 정해진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골든벨 촬영을 하게 되어 정규 수업은 물론, 아자도 하지 않았다. (ㄹㅇ 제일 좋았던거) 또한, 최후의 2인 혜택으로 첫 해외여행 기회를 얻게 되었다.

100인으로 참가했던 기자 소감

방송에 출연할 기회가 흔치 않은데 도전! 골든벨을 참가하게 되어 신기했다. 문제를 풀면서 방송 촬영 현장을 생생하게 보며 PD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졌다. 오프닝때 슬로건을 외치는 게 오글거렸지만 방송으로 보면 정말 멋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틀린 답을 쓴 상태로 답판을 들어야 했을 땐, 걸으려는 소리 지르며 답판을 흔들었지만 사실 멘탈은 흔들렸다. 촬영 내내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어야 했기에 힘들어서 빨리 탈락하고 끝내면 좋겠다는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최후의 2인과 1인이 탄생했을 때는 나의 일처럼 마냥 기분이 좋았다.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장은령 기자)

가장 기억에 남는 문제

Q. 다음 □에 공통으로 들어 갈 말은?

[비늘구멍에 황소□ 들어온다. 사람도 늦□이 무섭다. □ 앞의 등불.] - 1번 문제로 출제 되었는데, 속담을 많이 알지 못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너무 짧게 줘서 정답을 생각하지 못했다. 늦□은 안 좋으니까 사람은 늦□이 무섭다. 라고 생각했고 잠잘 때 불 켤 수도 있으니까 잠 앞의 등불이라고 생각했는데 틀렸다. 어이가 없어서 잊혀 지지가 않는다. (장은령 기자)

Q. 자신의 묘비명에 새기고 싶은 말은?

유명한 묘비명들이 나와서 문제를 듣기 전까지는 조금 당황했다.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모두의 의견이 정답인 문제를 내었다고 한다. 나는 당당하게 '블락비는 사랑이었다'를 적었고, MC 분이 그때까지 좋아하나 보재, 얘기했다. 단순히 답만을 강요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다. 조금 색다른 느낌을 주어 기억에 남는다. (류채영 기자)



<실제로 100인에 참여하여 골든벨은 몸소 체험한 기자들>

MINI, JOB을 잡아라!

도전! 골든벨 한경택 PD와의 짧은 인터뷰

Q. PD로서 가져야 할 자세?

A.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구성이란 내용을 말하는 거겠지. 물론 골든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이라 구성이 크게 바뀌는 일은 없지만 매회 조금씩 변화거든.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녹화도 하고, 편집도 하고, 구성 프로그램마다 다른 긴 하지만 일단 구성력이 있어야 해. 그다음에는 영상과 그림에 대한 이해. 어떻게 찍어야 좋게 보일 것인가.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보다 제일 먼저 갖춰야 할 자세는 사람과의 관계야. 그게 무슨 말이면 촬영하는 날 오는 그 수많은 인원(스태프들)이 나 한 사람을 보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를 그 사람들이 들어야 해. 늘 그 관계만 좋지만 한 것은 아니야. 가끔은 어그러지기도 하지. 일반적인 관계처럼. 거기서 PD는 각자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이끌어주고, 어쩔 때는 내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살짝 누르기도 하지. 단합을 위해서 화실에 돈을 쓰는 것 까지 모두 다 사람들과의 관계야.

Q. 진짜 현실적인 조언을 하자면?

일단, 좋은 대학교를 가. KBS는 4년제 대학은 다 받아주는데 이상하게 SKY야. 내가 알기로는 대학을 알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대부분이 그런 학교인 데는 이유가 있었지? 그리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토익이 만점 가까이 나와야 해. 그것 말고도 시험 과목이 많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대학과 영어. 그리고 나중에 PD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독서량을 늘려야 해. 음, 어느 정도냐면 골든벨을 쉽게 웅얼 수 있을 만큼의 여러 분야에 깊은 지식. 대학 입시, 끝까지 파이팅!

[취재/ 류채영(진양고3), 장은령(진양고1)기자]

[동아리탐방] 진주제일여고 진로&봉사동아리 'Dream Catcher'

꿈이 없으면 어때? 우리는 여전히 꿈을 향해 진행중이잖아! 드림캐처!

고등학생이 되어도 꿈이 없기는 마찬가지라 투덜대는 친구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대학을 가긴 해야 하는데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 막막한 학생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는 학생들. 진주제일여고에는 여기 이 동아리에 다 모였다. 이름 하여 'Dream Catcher' 말 그대로 꿈을 잡는다고 한다. 어떻게 잡을까? 지금부터 알아보자.



<동아리 부장 2학년 박솔 학생>

관련 동아리였기 때문에 활동할 동아리가 마땅히 없었어요. 그런 고민 끝에 진로도 찾고 대학까지 알아볼 수 있는 동아리가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만들게 되었어요.

Q. 어떤 활동을 하나요?

A. 총 다섯가지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일단 진로를 찾으려면 자신의 적성을 먼저 찾아야 되죠 그래서 적성검사를 우선 할 생각이에요. 또 동아리 이름이 드림캐처인 만큼 드림캐처도 만들어 봐야겠죠? 적성에 맞는 진로를 고민해보고 학과별 대학 탐방도 해 볼 예정이고, 또 진로와 맞는 봉사 활동도 찾아서 해보려고요. 그리고 선배들의 효율적인 공부방법들을 모아서 같이 내신 준비도 힘써 볼 생각이에요.

Q. 간단한 동아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희는 이번에 만들어진 신설 동아리예요. 진로에 대해 고민이 있거나, 막막한 학생들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해 봄으로써 진로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는 동아리랍니다.

Q. 동아리 창립 계기가 무엇인가요?

A. 1학년 당시에 저와 친구들의 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아리를 찾아보니, 진로를 알아보는 동아리도 없었고, 대부분이 확고한 진로

Q.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가요?

A. 적성검사를 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니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중에서 흔하게 OMR카드

로 하는 방법 말고, 재밌는 게임을 병행해서 즐겁게 적성검사를 해보려고 해요.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탐색 활동이 제일 기대되네요.

Q. 동아리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솔직히 말하자면 진로를 찾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에요. 저희는 진로를 빨리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고 흥미가 있는 적성을 알아보고, 어느 분야에 내가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는지 까지만 알아도 이 동아리의 목표는 충족했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해도 성공한 것이 아닐까요?

Q. 꿈이 꼭 있어야 할까요?

A. 제가 동아리 소개를 할 때 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꿈이 없다고 해서 진로가 없고, 대학을 못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는 마음 먹기 따라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Q. 만약에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들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A.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지금 제가 잘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것이, 미래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라도 도움이 되는데,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확한 미래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잘하는 것을 일단 하고 좋아하는 것을 취미로 두는 방향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저희가 신설 동아리라서 홍보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다른 동아리에 비교해서 계획이 세부적이거나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올해 동아리를 하면서 더욱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동아리 활동을 이어나갈 의지가 무척이나 높답니다. 우리 동아리 친구들이 여러 활동을 계기로 미래에 대해 구체적 고민을 통해 진로를 찾

고, 그 진로에 대한 확신으로 자신만의 소중한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취재/ 이다은
(제일여고2)기자]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우리 모두 함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장애인: [명사]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깜깜한 어둠속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가도가도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일 것이다. 이 터널을 지나고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언젠간 빛을 만날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씨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지만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전신 3도 중화상을 입고, 죽음의 문턱에서 40번이 넘는 대수술과 재활치료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재 UCLA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전공하고 있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처럼, 마음속에 긍정적 사고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에 화상과 같은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의 임금 중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

세종대왕의 업적을 모르는 분은 없어도, 세종대왕이 시각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세종대왕님의 실명은 과도한 업무, 육식 위주의 식습관, 불규칙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생활습관 등이 종합적으로 현대 의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1443년에는 이미 실명하신 후 라고 합니다. 세종시대가 태평성대 했던 것은 세종의 서민복지정책 때문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에게는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주고, 요양보호사나 활동보조인제도와 유사한 복지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성군의 장애, 세종대왕이 더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장애가 있음에도 열정적인 삶에 대한 의지,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했던 삶은 비장애인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는 인생을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위인들의 삶을 보며 깨달으시기를 바라며, 비장애인에게도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봄은 도시 편향 전주!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학생들에게 동 쌀 권리를 허하라!

학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는 불편한 진실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짧으면 10시간, 길면 14시간, 하루의 반 이상을 학교에서 보낸다. 집에서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그래서 어쩌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집만큼 편안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에 화장지가 없다. 학생들은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위한 화장실 '휴지'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너무 사소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화장실에 갈 때, 무언가를 흘렸을 때, 코를 풀 때 등등...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이 화장지다. 그런 화장지를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학교에 휴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진주의 A학교는 화장실에 휴지가 아예 없고, B학교는 한 달에 두루마리가 2개씩 지급된다고 한다. C학교는 학교 화장실에 휴지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휴지가 화장실 내에 없을 때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조사해본 결과, 어 모(18)씨는 "하루는 화장실이 너무 급했는데 휴지를 빌리러 다닐 때 너무 고통스러웠다." 라고 답했고, 임 모(17)씨는 "휴지를 빌리러 다니며 자주 참다보니 변비가 생길 것 같다." 라고 답했다. 또한 남녀공학인 학교를

다니는 한 학생은 "휴지를 챙겨갈 때 민망하다" 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중앙고의 김모양은 '우리학교는 일주일에 하나씩 휴지가 배급되는데 서른 명 가까이 되는 여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며 '여학생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현상까지 겪는 것을 감안하면 휴지 한 개를 주며 일주일 사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진주여고의 한 학생은 '학교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휴지를 배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학교 예산이 아닌가?' 라며 문제를 제기 했다. 또한 동명고의 어떤 학생은 '휴지를 학교에서 지급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낭비하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학생들이 화장지 사용 같은 공공시설의 관리 또한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육의 일부분이라고 생각 한다.' 며 화장실 휴지조차 학생 개인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교육현장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에서 화장실에 휴지수를 제한하거나 비치할 제한하는 이유를 알아보니 학생들이 휴지를 과도 하게 사용하여 낭비하거나 휴지로 장난을 친다는 것이었다.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학생들 화장실 화장지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일까? 학생들의 불편은 분명한 사실이다.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낭비가 문제가 된다면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교육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맞다. 학생들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휴지를 지급하지 않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취재/ 장은령(진양고1)기자]

보건선생님 어디 가셨지?

정규수업이 끝나면 보건교사는 퇴근, 그러나 학생은 학교에 그대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사가 누구일까? 대 학입시에 영향을 많이 주는 수학, 영어교사? 학생들의 진로를 책임지는 진로담당교사? 그것도 아니면 맛있는 급식을 책임지는 영양교사? 학생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선생님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정말 빼 놓을 수 없는 분이 있다. 바로 보건교사다. 보건교사는 학생들이 아플 때 약을 챙겨주는 것은 물론, 학교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교내 위생관리까지 담당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 학교에서 발생한 응급사고에 대한 대처이다.

학교는 많은 인원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고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 특히 체육대회와 같은 큰 행사에서는 보건교사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응급사고가 났을 때 보건교사의 주도아래 응급처치를 잘 해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고 위기를 넘긴 사례 또한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보건 교사가 없다면 어떨까?

진주시내 중고교를 조사해 본 결과 중학교는 9개교, 고등학교는 6개교가 아예 보건교사가 근무하지 않았다. 학생수가 적은 시 외 각지역 학교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개양중학교, 사대부중-고, 진주외고에 보건교사가 없다는 것이 의외였다. 더구나 축구부, 씨름 등 여러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경남정보고가 보건교사가 없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렇듯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다른 과목 교사가 보건 담당교사를 겸임한다. 수업과 보건관련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교사를 대신하기엔 역부족이다.

또 방과후, 아자까지 학생들은 밤 늦게까지 학교에서 생활한다. 안전사고가 밤에는 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당연히 보건실이 일찍 문을 닫아 불편함을 느낀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학생: "아자 쉬는 시간에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다쳤는데 보건실 문이 닫혀서 집가서 치료 받았어요"

—학생: "석식을 먹고 속이 안 좋아서 보건실을 갔는데 보건쌤이 퇴근하셔서 소화제를 못 받았어요"

이렇듯 많은 학생들이 방과 후 전에 일찍 퇴근하는 보건실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다.

보건교사라고 해서 보건실에서 모든 일과를 보내지 않는다. 성교육, 위생교육 등 보건수업을 하기도 하고 시험기간에는 시험 감독으로 보건실을 비운다. 또한 교육이나 연수 등으로 학교를 비우는 일 또한 자주 생긴다. 이럴 때 보건실의 문이 닫혀 있으면 학생들은 곤란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정규수업이 끝나면 보건교사도 퇴근을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방과 후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대로 있다. 또 대부분의 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으로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생활 한다. 당연히 보건교사는 없다. 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방과 후 저녁식사시간 전까지라도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필요하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진주시 관내 보건교사가 배치 안 된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9개교	6개교
개양중학교/ 경상사대부중/ 금곡중학교/ 대곡중학교/ 명석중학교/ 문신중학교/ 반성중학교/ 지수중학교/ 진서중학교	경남정보고/ 경상사대부고/ 대곡고/ 진서고/ 경남예술고/ 진주외고

[취재/ 김정빈(진주2)기자]

급식실은 일반 식당이 아니다

규정된 식단을 짜야하는 급식은 매일 원하는 식단이 나올 수 없다

한 학교의 급식 시간, 배식을 받고 자리에 앉은 학생 한 명이 불평을 시작한다.

"매일 같은 돈 내는데 왜 어제는 맛있고 오늘은 맛있는 거지?" 그리고 그 한 마디는 곧 급식실에 관한 소문으로 번지기 시작한다. 과연 소문만 무성한 급식실의 이면에 정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J학교 영양사 선생님과 인터뷰를 통해 급식과 관련된 궁금증을 알아보았다.

Q. 학교 급식에도 비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

A. 근로기준법과 학교급식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2018년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조리사의 근무 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했고,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학생 수에 따라 인력과 재료비 등이 정해져 있다.

Q. 매년 급식비 상승에 비해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A. 급식비가 매년 오르는 이유는 인건비가 해마다 오르기 때문

이다. 또한 학교 측에서는 급식을 먹는 교사와 학생 모두의 입장을 고려하고, 정해진 열량과 재료비에 맞추어 식단을 짜다보면 매일 원하는 식단이 나올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Q. 추가로 급식비를 더 지불하면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A. 급식을 신청한 학생 수에 맞추어 재료비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추어 급식비를 분배할 뿐

추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무엇보다 급식실은 돈을 주고 원하는 것을 사는 식당이 아니다. 또한 학생들이 평소 애용하지 못하는 사소한 것까지 정해진 체계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루머와 민원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 대부분이다. 학생들이 급식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한 번쯤 생각하고 행동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매일 다양한 음식들로 학생들의 허기를 달래주고 늘 따뜻한 밥



을 먹을 수 있는 급식실. 그동안 급식실의 의미에 대해 너무 가벼이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반성이 들었다. 때로는 급식실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학교 급식실이든 학생들에게 최선의 식단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목표일 것이다. 오늘만큼은 투정대신 고마움으로 급식을 받아보자. 서로에 대한 작은 생각의 변화, 그것이 쌓인 오해를 푸는 최고의 방법이다.

[취재/ 정해밀(진주여고2)기자]

부교재 구입,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책값?

교과서는 버려지고 부교재, 보충교재 부담은 커지기만...

언제나 새학기가 되면, 서점에는 학생들이 바글거린다. “뭐 사러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같다. “부교재요.” 또는 “보충교재요.” 그래서인지 서점 한 켠에는 각 학교마다의 부교재/보충교재 목록표와 함께 해당되는 책들이 줄줄이 쌓여있다. 부교재/보충교재는 학교에서 교과서 이외로 사용하는 문제집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보충시간(8,9교시)에 사용하거나 교과서를 대신하여 수업하는 교재이다.

부교재와 보충교재는 학년마다, 문과나 이과나, 자신이 선택한 방과후 수업에 따라 다르다. 학생들의 부교재/보충교재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A씨: 일단 책이 많아서 싫어요. 시험기간에 이것 저것 더 가지고 다닐 생각하면 어휴...

또 주문하고 며칠 정도 기다려야하는데 그 사이에 수업이 있으면 또 곤란해지기도 해요.

○B씨: 교과서에 내용이 부족하다고 부교재를 사라고 하는데 돈이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체육 책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으로 부교재 한 권은 더 살 수 있을텐데... 과목당 하나도 부담인데 한 과목에 문제집을 두 개 정도 살 때도 있거든요. 하나당 만원이라고 치고 다 합하면... 한 15만원? 한 권에 만원이 넘으니 사실은 더 나가죠.

○C씨: 근데 부교재가 필요한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교 교과서에 문제도 부족한데 하고요. 그런데 사야하는 책이 너무 많아요. 1년 안에 다 못 끝내는 책들도 있어요. 제가 산 것만 해도 12만원이 넘어요. 교과서를 한 번 더 사는 기분이에요.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처럼 다 쓰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교과서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문제집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비용에 대한 부담과 그 실용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해결책이 나와야할 것이다.

교과서를 거의 쓰지 않는 수험생의 경우는 많은 손해가 발생한다. 문과생의 경우 최소 14권, 이과생일 경우 최대 18권으로 늘어나는 EBS 수능 연계교재만 해도 한 권당 만원 꼴이다. 거기다 교과서 값 10만원(작년대비 증가할 예정)을 더하면 교재 값만 20여 만 원을 훌쩍 넘는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더 심각한 것은 교과서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결국 쓰레기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교과서를 사자마자 버리게 되니 그 낭비는 물론 환경까지 고려하면 국가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과서는 쓰지도 않고 버려지고, 늘어만 가는 부교재와 보충교재 구입은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부담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교과서와 별도로 부교재나 문제집이 필수가 된 현실이 올바른 우리 교육현장의 모습인지 학교와 교육당국은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취재/ 김가나(경해여고2)기자]

야간자율학습, 이게 무슨 자율인가요?

자율이란 이름으로 언제까지 학생들의 권리를 무시할 건가

고등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무는? 야자나무!

요즘에는 흔히 야자개그라고 불리는 난센스 퀴즈 중 하나이다. 여기서 야자나무는 ‘야자’, 야간 자율학습을 말한다. 말장난에서도 말하고 있는 고등학생이 가장 싫어한다는 야간자율학습(이하, 야자). 도대체 무엇이 학생들이 그토록 싫어하도록 하는 것일까?

원래 야간자율학습의 목적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하는 것이라고 한다. 야자를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공부 습관을 확립할 수 있고 나아가 사교육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원래’ 목적은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목적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의 문제점들을 통해 알아보자.

먼저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안 한다’는 것. 여기서 안 한다는 것은 정작 ‘학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야자 시간의 풍경은 공부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자는 학생들, 노래 듣는 학생들, 매점에서 주전부리를 사와 감독 교사 몰래 먹는 학생들 등 매우 다양하다. 과연 ‘학습’ ‘공부’의 시간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야자의 목적과 달리 오히려 야자를 빠지고 학원을 향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야자를 통해 학원이나 과외 등 학교 외의 학습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인다고 했지만 정작 학생들의 야자 불참 사유의 대부분은 학원, 학원 보충 등을 적기 일쑤다. 야자가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인과관계 또한 현실과 다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야자가 실제로는 자율이 아니라는 것이다. 분명 야간자율학습이라는 단어 자체는 ‘스스로’ 학습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강제로 ‘스스로’ 하도록 시킨다니, 이 얼마나 역설적인가. 강제로 하는 행해지는 학습이 비효율적이고 비교육적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학생을 억지로 앉혀 놓는다면 대체 학습에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강제적인 자율학습은 학생들의 쉼 권리인 휴식권, 학생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율권을 침해한다. 물론 학생들에게 주어진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각자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만큼 소중한 시간임을 누구나 안다. 하지만 그 ‘미래’를 찾기 위해서 학생들이 쉼 수도 없고 자유 또한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폐해다.

당장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한다면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 또한 없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강제적’ 자율학습을 폐지하고 진짜 ‘자율적’ 자율학습을 시행한다면 분명 우리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지 않을까 싶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면 교육을 시킨다는 개념이 아닌 스스로 하도록 한다는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취재/ 전규원(경해여고1)기자]

[기고] 00여중 인권모임 인간적으로

'학교에서 인권을 말하다' 1

진주의 한 중학교의 인권모임 ‘인간적으로’의 구성원이 학교에서 겪었던 일들을 글로 풀어낸다.

“너희들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한다. 왜냐하면 너네들은 장차 커서 건강한 씨앗을 품을 받아 될 몸이기 때문이다.” “너네는 너무 난하게(난잡하게) 굴어서 치마를 입어야한다.” “너네들이 아이들을 많이 생산해내야 한다.” “(떠드는 아이를 보고) 너 특수반이네 1층(특수반)으로 내려가라.” “(틴트를 바른 학생을 보고) 술집여자냐?” 내가 다녔었던 학교의 교사들의 발언이다. 누군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하는 말 아니냐, 다른 사건에 비해 심한일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별 거 아닌 발언”으로 학내운동을 시작했다.

위의 발언들은 한 두 명의 특이한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의 발언을 옮겨놓은 것이다. 그렇게 차별과 무시, 굴욕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문제제기를 하면 “술집여자라는 말이 듣기 싫다면, 네가 틴트를 안 바르면 되는 일 아니냐?” “선생님은 책에 나온 대로 가르친 건데 왜 선생님을 탓해” “그래도 선생님인데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 같은 말들이 따라 다녔다.

그러한 발언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문제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 사소한 발언이라며 넘기다보면 그게 쌓이고 쌓여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의문의 씨앗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학교 안의 몇몇 뜻 맞는 학생들과 인권모임을 만들었다. 그 인권모임의 이름이 <00여중 인권모임 인간적으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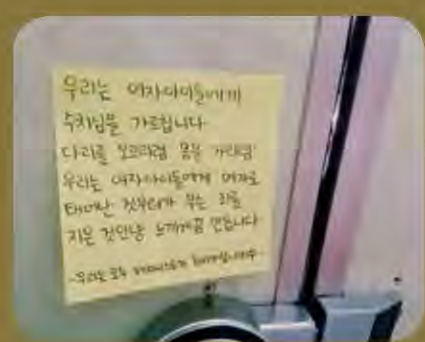
인간적으로의 첫번째 활동은 페미니즘 포스트잇 붙이기 운동이었다. 문제 발언의 대다수가 여성혐오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포스트잇을 하나 하나 직접 써서 학교 화장실에 붙이는 활동을 했다. 내용을 정할 때도 고민이 많았다. 페미니즘 책의 내용을 짧게 인용하거나 실제로 들었던 혐오발언들을 적어서 붙이면서 시작했다.

생각보다 포스트잇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 하나하나 적어서 테이프로 붙이는 것이 함께할 사람이 많이 필요한 일이란 걸 깨닫고 같이 할 이들을 구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을 설득하거나, 다른 학년의 선,후배를 만나 이야기하면서 점차 함께할 사람들을 늘려나갔다. 이때는 단지 캠페인이라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다.

처음 한 두 번은 분위기도 괜찮았고, 생각보다 오래 포스트잇이 남아서 잘 되고 있구나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포스트잇을 떼려 갔다가 칼로 난도질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거의 모든 포스트잇이 난도질이 되어 있었고, 반에 들어가면 “왜 붙이냐”, “누가 붙이냐”, “누군지 찾자”는 이야기를 빈번히 들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포스트잇을 붙인다는 것을 알리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숨기지도 않았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 당당히 말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그때 느꼈던 공포에 가까운 감정은 같이 붙이던 사람들 모두가 아직도 공유하고 있는 마음이다.

학교에서는 누가, 어떤 이유로 포스트잇을 붙이는지 당당히 밝히며 붙이려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 우리는 그 말을 믿었고 다 같이 교무실에 찾아가서 붙이는 이유와 기간을 밝히며 난도질하는 사람들에게 자제해달라는 방송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무슨 소리냐며, 너네가 하고 있는 짓은 무단설치물



이라며 붙이면 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난도질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학교에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일이라며 방임했다. 학교의 태도는 난도질 하는 사람들에게 명분이 되었다. 더 빨리 난도질을 당했고, 당당히 자기가 했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생겼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더 이상 붙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호에 계속...)

[글쓴이 : 머랭(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시부, 00여중 인권모임 인간적으로활동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2006년부터 청소년인권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는 청소년운동단체입니다. 아수나로 진주시부는 언제나 함께할 회원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가입 및 후원문의 : 010-9770-8603

[선배가 말하는 학과이야기] 한국외대 통번역학부 2학년 신윤지를 만나다

영어를 정말 좋아한다면 통번역학과 도전을 강추합니다!

현대시대에서 영어는 뿔레야 뿔 수 없는 존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관련된 학과가 많을 수 밖에 없어요. 그 중 영어통번역학과라 하면 생소한 학과라 될 배우는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은데요. 이번호에는 부산외대 영어통번역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신윤지씨를 만나 통번역학과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Q. 자기소개 해 주세요!

-저는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인 17학번 신윤지입니다.제가 재학중인 과는 영어통번역학부예요.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는 1학년 때는 영어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2학년 때 영어학과 통번역으로 길이 나뉘어요. 저는 통번역을 선택해서 현재 통번역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저도 진주 경상사대부고를 졸업한 좀 가까운 여러분의 선배랍니다.

Q. 통번역학과에선 뭘 배우는지?

-통번역은 전체적으로 다 통역이랑 번역을 모두 공부하는 학과예요. 아직은 2학년밖에 안돼서 통번역 입문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통역과 번역에 있어서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Q. 영문과, 영어과, 영어통번역과의 차이점이 뭐죠?

- 영문과는 영어영문학이라고 하며 영미문학사, 시, 소설, 희곡등 문학관련 모든 장르의

내용들을 연구합니다. 영어과는 음성학, 의미론등 언어로서의 영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죠. 영어과를 화화중심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영어과는 말그대로 영어에 대한 모든걸 배우는 곳이고, 영어통번역과는 영어통역/영어번역이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통역과 번역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면 영어통번역과를, 그 이외에 영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면 영어과를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번역과는 전문 통번역이 있고 일반 통번역이 있는데 전문적인 통번역연구는 장기간 소요되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Q. 통번역학과의 선택 이유는?

- 영어를 좋아하지만 영어학부에서 배우는 내용을 공부하기 싫기도 했고,원하는 꿈이 군대 안에서 통역사관 일을 하는 것이라 통번역을 선택했어요.

Q.대학생활 중 재밌는 에피소드?

- 교수님이 실제로 통번역 일을 하시는 분이기에 교수님이 겪었던 실수들을 보완하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썬을 많이 풀어주셔서 재밌어요.그리고 교수님이 앞에서 한국말을 하시면 저희는 영어로 말을 해야 해요.그런 게 재밌으면서도 어렵고 어렵기도 하죠.

Q.번역학과와 관련된 직장?



〈국제행사에 통역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자주 하게 된다〉



〈학교 강의실 모습, 물론 학생들은 모두 영어로 이야기 한다.〉

- 제일 많이 진출하는 분야라면 대기업에서 문서를 번역하는 일이에요.토익에서990점을 받았다고 해도 전문적으로 번역을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은 번역을 배운 사람들이 많이 하는 편이죠.또 영어학부가 때문에 영어 가르치는 일도 많이 하고,방송 쪽으로 나가는 선배들도 있고,각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다양해요.

Q.통역과 번역의 차이?

- 음성 언어를 듣고 말이나 글로 하는 것이 통역이고, 번역은 글로 적힌 걸 다시 영)한으로 바꾸거나 한)영으로 바꾸는 것을 번역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통역이 더 어렵죠.듣고 메모를 하면서 바로바로 말해야 하니까요.시간적 제한도 크고,저는 그래도 통역 쪽으로 나갈 생각이에요.

Q.미래의 영어학부 입학생을 위한 조언?

- 영어학부가 영어영문학과랑 비슷하거든요.대신 저희는 문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배워요. 일단 영어학부, 영어영문학과 둘 다 영어를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닌 이상 오면 안돼요. 단순히 영어 성적이 잘나온다고 해서 올 생각을 하면 안돼요. 그리고 회화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들답니다. 제 친구는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영어 1등급을 놓친 적이 없었는데,회화가 안돼서 C+를 받는 적이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영어가 제일 재밌었기 때문에 영어학부를 선택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비추!



〈영어 연극동아리 활동은 재미도 있지만 공부도 되는 활동이다〉



〈평창올림픽 자원봉사 때, 피겨스케이팅 민유라 켈린선수와 함께〉



〈동계올림픽 기간 통역 자원봉사활동으로 평창에서 생활 했다〉

택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비추!

Q.마지막으로 학교에 대한 자랑 좀 해주세요!

- 여러분들이 대학 선택할 때 부산외국어대학교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외대도 있고,여러 외대가 있긴 한데 부산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는 과가 정말 많아요.아랍어과나,중동지역학부도 있고,일본어창의융합학부도 있고,학교 자랑을 좀 하자면,어느 학부를 들어오든 복수전공을 해야 졸업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학부가 굉장히 다양해요.국제비서학부도 있고,경찰행정학부도 있고,정보학부도 있고, 다양하게 선택지가 많으니까, 외국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부산외대에 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성적이 특출나게 우수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부산외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웃음)

영어통번역학과에 대해 알려주마!

영어통번역학과란?

제가 영어통번역학과를 전공한다고 하면 뭘 배우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과야?

학과나 학문 자체가 생소한 게 많으니까요.

영어통번역학과란?

영어통번역학과에서는 과 이름 그대로 영어를 정확히, 전문적으로 통,번역하는 방법을 배워요!

알파고도 못해도

독신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자 먹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저희는 할 수 있어요!

영어통번역학과란?

소설 등 심미적인 분야를 다루는 영어영문학과와 달리 영어통번역학과는 실용적이고 체계적으로 언어 그 자체, 그리고 통역과 번역의 실재적인 기술을 공부하는 거죠!

"실용"에 초점을 맞춘 학문이라 보시면 돼요!

영어통번역학과란?

따라서 한국어 능력도 필수! 통,번역을 할 때 적절한 어휘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불려났다

increase

같은 말이더라도

증가하다

어떤 어휘를 쓰는가에 따라 느낌이 달라져요!

영어통번역학과란?

또, 영어라는 언어도 하나의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영어학"도 함께 공부합니다.

형체소, 단어, 문장과 문단부터 글 전체까지!

ABC

배우는 과목

전공 과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영어학 입문, 텍스트 유형과 번역, 영어 형태론과 어원, 시사영어강독 등

영한순차통역, 한영순차통역, 통역기초 등

1학년 2학년 3,4학년

취업 강대 학과!

영어통번역학과가 있는 학교는 그리 많지 않아요. 전공자가 수요에 비해 적은 만큼 취업률이 높아요!

실제로 제가 재학 중인 동국대 영어통번역학과는 2019년 취업률은 무려 78%로 인문계열 최고!

인문계열의

숨은 취업 강대 학과!

취업 강대 학과!

문인 아니라 취업분야의 재한도 거의 없죠. 어디에 가든 영어 전공자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니까요.

실제로 졸업한 선배들은 CJ, 이오래퍼시픽과 같은 대기업부터 언론사, 공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취업해 활동하고 계세요!

취업 분야 제한?

그게 뭐야? 먹는 건가?

[취재/ 김가나(경해여고2), 정유진(진양고2)기자]

[JOB을 잡아라] 레이크사이드호텔 이희복셰프를 만나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일, 그래서 요리는 매력적이고 환상적인 직업입니다

먹방, 국방이 대세인 시대, 이제 '셰프'로 통하는 요리는 많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유망 직업의 하나가 되었다. 떠오르는 인기 직업, 그만큼 요리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청소년들도 많아졌다. 흰 조리복을 입고 요

리를 하며 셰프라 불리는 사람들, 그러나 화려한 그 이면에는 엄청난 노력이 숨어있었다. 도전하는 요리사, 아시아레이크사이드 호텔(Asia lakeside Hotel) 이희복 총주방장을 만나보았다.



Q. 셰프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셰프는 요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메뉴개발, 주방 총 관리, 대학 강연(조리 관련 교육), 행사 때 마다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는데 힘쓰는 등 많은 일을 합니다.

Q. 셰프가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를 갖고 시작한 것 보단 단순히 요리가 좋고 셰프라는 직업이 맘에 들어서 도전 했어요. 1988년도에 군대 제대하고 본격적으로 셰프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올해로 30년째입니다.

Q. 일을 하며 힘들었던 점은 없으셨나요?
스승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2년 정도만 저에게 스승이 있었고, 나머지는 저 혼자 관련 서적이나 영상을 보고 궁금증을 해결해야 했어요. 그럴 때 마다 멘토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꼈죠.

Q. 직업 '셰프'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제가 가르쳐준 제자들이 마지막 수

업 때 큰 전지를 짝 채워 롤링페이퍼를 적어줬어요. 그 마음이 전해와서 뿌듯하기도 하고 감동적이었죠. 지금 그 제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가끔 연락 오면 반갑고 그래요.

Q. 셰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정형화된 길은 조리고등학교-요리학원, 요리 전문대를 진학해서 셰프의 자격을 얻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 스스로 책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기를 좋아하고, 배우는 자세를 갖추면 셰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셰프님의 최종 목표는 뭔가요?
전국 모든 곳에 제자를 두는 것이 저의 꿈이자 소망입니다.

Q. 셰프의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리를 사랑하고 음식을 소중히 다

만드는데 생동맛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음식이야말로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모든 것이 나타나는 작업입니다.

Q. 직업으로 셰프의 매력을 말씀해주세요.
누구만의 특별한 요리사가 되어 남을 위해 요리해 줄 수 있다는 것. 멋지잖아요. 또 나로 인해 다른이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매력적이고 환상적인 직업이 또 있을까요.

Q. 단 한마디로 셰프님에게 요리란?
장인정신.

Q. '아, 이런 손님 정말 싫다'라는 생각이 들 때?
물론 있죠. 음식이 질기다라며 불평 불만을 하시면서도 그걸 다 먹는 손님이 정말 싫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경력이 쌓이면서 남의 잘못

**"성공이란 것이 꼭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결같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답 같은 것"**

루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인성"이 중요하고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죠. 음식

보다는 먼저 제 스스로의 잘못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Q. 보통 요리사들은 집에서 요리를 잘 안하시던데, 셰프님은 어떠세요?
처음엔 아내가 요리를 잘 못해서 많이 도와줬죠. 근데 호텔에서 많은 요리를 하다 보니 질려버리더라고요. 그래도 가끔씩은 가족을 위해서 집에서 조리복을 입고 즉석에서 초밥을 만들어 줘요.

Q. 보통 요리사들은 집에서 요리를 잘 안하시던데, 셰프님은 어떠세요?
처음엔 아내가 요리를 잘 못해서 많이 도와줬죠. 근데 호텔에서 많은 요리를 하다 보니 질려버리더라고요. 그래도 가끔씩은 가족을 위해서 집에서 조리복을 입고 즉석에서 초밥을 만들어 줘요.

Q.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한다는 것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으로 스스로를 낙담하게 만들지 말고 항상 긍정적, 감사한 마음으로 현실을 즐겼으면 합니다. 무엇인가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잖아요.^^

이희복 셰프는 요리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신다며 주방으로 기자들을 안내했다.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드라마 속 주

방과 같이 잘 정돈된 주방으로 들어갔고 거기서는 여러 맛있는 냄새가 우리 후각을 자극했다. 주방장님께서 오일을 팬에 두르자 불이 팬을 휘감았고 그 속에는 고기와 여러 재료가 서로의 맛을 섞어가며 경쟁하듯 익어 가고 있었다.

인터뷰를 하느라 많은 시간을 내주고 맛있는 음식까지 손수 준비해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 정도였다. 하얀색 조리복과 높다란 모자가 멋드러진 셰프의 모습에서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또 한편으로는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기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셰프의 편안한 미소에서 엿볼 수 있었다. 한 길을 우직히 걸어 최고의 요리사의 자리에 있지만 지금도 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성공이란 것이 꼭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결같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답 같은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기자들을 위해 이희복셰프가 직접 요리를 해 주었다.〉

요리사가 되려면 가장 빛나는 요리사 CHEF

어떤일을 하나?

요리사의 으뜸이자 주방의 대표자. 요리 레시피를 개발하고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손님이 주문한 요리를 만든다. 다른 요리사를 지도하고, 요리 중 중심 부분을 담당한다. 계절·손님·예산에 맞춰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데, 이를 위해 각 재료의 특성과 조리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식재료와 납품업자를 고르고 식재료의 배달 상태를 체크하기도 한다.

이 직업을 가지려면?

예전에는 유명한 요리사의 제자로 들어가 기초부터 배웠지만 지금은 조리과학고등학교와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 교육 받거나 외국의 요리 전문 학교에 유학하는 경우가 많다. 요리를 시작하면 먼저 주방에서 식재료 다듬기 같은 작은 일을 담당한다. 경력이 쌓이면 샐러드 요리, 고기 요리, 디저트 등을 만드는 요리사가 되고 능력을 인정받으면 셰프가 될 수 있다. 오너셰프란 셰프이면서 레스토랑 주인인 사람을 일컫는다.

관련 학과는?

식품영양학, 식품조리, 조리과학, 호텔조리, 외식조리, 관광호텔조리학과 등이 있다.

조리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외국 요리 전문 학교에서 유학하는 방법도 있다. 세계 3대 요리 학교는 미국의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프랑스의 르 코르도네 블루(Le Cordon Bleu), 이탈리아의 I.C.I.F.(Italian Culinary Institute for Foreigners) 등이 꼽힌다.

셰프가 되고 싶은 학생이라면?

흔히 타고난 미각이 중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노력하면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이보다는 손재주와 체력, 성실함 등이 도움이 된다. 셰프는 맛있고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예쁜 것 만들기를 좋아한다면 적성에 맞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대단한 체력이 필요하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무거운 식재료를 다루는 경우도 많으며, 휴일 근무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니 성실함은 기본이 될 것이다. 또한 일이 고되더라도 자신이 만든 음식을 누군가 맛있게 먹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긍정적인 사람이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많은 요리사를 거느린 셰프가 되려면 대인관계가 좋아야 한다. 아무리 요리를 잘 만들어도 손님 특성에 맞추지 않거나 손님을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미술관에 가고, 음악을 듣고, 책을 보는 등 여러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경험해야 자신만의 매력에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

[글로벌미팅] 카자흐스탄 유학생 알디야르 살케노브

"한국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카자흐스탄은 평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카자흐스탄, 이름만 듣기에는 다소 생소한 나라.

하지만 한민족의 피가 흐르는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국가이기도 하며,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면적의 나라, 유목민족의 후예로 알려진 나라가 바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다. 이번 호 '글로벌미팅'의 주인공은 경상대학교에 유학중인 '알디'. 그가 말하는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에 대한 얘기를 직접 만나 들어보았다.

Q.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디야르 살케노브이고, 카자흐스탄에서 왔습니다. 올해 22살로 경상대 정보과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Q. 한국에 공부하러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사실, 한국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니던 학교에서 교환학생을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신청해서 오게 됐습니다.

Q. 카자흐스탄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웃음)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나라이고,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소련, 지금의 러시아)에 속해 있다가 1991년 독립했어요. 언어는 공용어인 카자흐어, 러시아어 두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지정한 제 3언어로 영어를 쓰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지만 러시아계 사람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일부는 기독교를 믿기도 하고, 따라서 종교에 대해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Q. 한국에 와서 겪은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A. 저는 원래 여행을 좋아하고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한국 외에도 많은 나라들을 여행했죠. 한국에서도 3년 동안에도 서울, 부산 등 많은 곳을 다녔죠. 특히 경주는 환상적이었고 한복을 입어보았던 경험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Q. 한국과 카자흐스탄 학생들의 다른 점이 있다면?

A.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선

배들이나 교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특별해 보여요. 또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걱정, 많은 돈을 쓰는 것은 놀라워요. 아마 세계에서 한국처럼 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 곳은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카자흐스탄과 많이 다르죠.

Q. 카자흐스탄 학생들의 대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한국에서는 11월에 있는 수능을 위해 비행기도 뜨지 않을 정도라고 들어요. 카자흐스탄은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만(웃음) 수능처럼 시험을 치고 대학에 갑니다. 수학, 역사, 그리고 카자흐어와 러시아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보죠. 5개 과목을 필수로 봐요. 거기에 자신이 영어 전공을 할 거라면 영어 시험을 선택해서 봐야 하는 형식입니다.

Q. 카자흐스탄 학생들도 사교육을 받나요?

A. 네 받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몇 년에 걸쳐 꾸준히 받는 경우는 드물죠. 필요할 때 잠깐 받는 보충 교육 정도로 생각합니다.

Q. 카자흐스탄에서도 한류가 유명한가요?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나요?

A. 음... 일단 카자흐스탄에는 고려인들이 있죠. 그 분들이 있어 김치라던가 여러 한국 대한 기본적인 것이 낯설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요즘엔 한국드라마를 많이 알죠. 여학생들은 방탄소년단이나 빅뱅 등의 케이팝 가수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블랙핑크의 제니와 지수를 가장 좋아해요. 예쁘더라고요.(웃음)

Q.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A. (웃음) 이걸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생각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친구들이 장난으로 "개고기 먹어봤어?"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리고 한국의 화장품이 인기가 많죠. 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를 발전시켰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도 대부분 알고 있어요.

Q. 한국 학생들의 생활을 보고 느낀 점이 있다면?

A. 한국 학생들은 모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하죠. 카자흐스탄에서는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게 된다, 그러나 멀리 가려고 하면 함께 가게 된다.' 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서로 협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늘 '열심히 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고만 가르치는 것 같아요.

Q. 최근 한국에서 '스쿨 미투'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만약 카자흐스탄에서도 진행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동참할까요?

A. 네. 굉장히 좋은 캠페인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학생들은 평등한 교육을 누릴 권리가 있고 사회는 그것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Q. 마지막으로 학생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진주의 학생들도 대부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지만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게 되고, 멀리 가려고 하면 함께 가게 된다는 걸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 거고, 더 좋은 학창 시절을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카자흐스탄 상식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에 걸쳐 있는 나라이다. 카자흐어(국가어) 및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수도는 아스타나이다. 카자흐인이 국민의 다수를 차지한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거인'이라는 별명으로도 부른다. 현재 고려인은 11만명 정도가 있으며, 교민도 10만 5천여명으로 추정된다.



러시아, 카스피 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세계에서 아홉째로 큰 나라이자, 가장 큰 내륙국이다. 카스피 해 북쪽에서 알타이 산맥에 이르는 국토의 동서 길이는 약 3000km에 달한다. 이 거대한 영토에 130여 개 민족으로 구성된 1800만여 명의 인구가 평화롭게 살고 있다. 석유, 가스, 우라늄, 텅스텐 등 에너지와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우리나라

와와는 주 8회 항공기 직항이 운항되며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다.

1850년경에 러시아의 영토가 되었으며, 1925년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이 성립되었고 1936년에는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소련에 편입되었다. 1991년 12월 16일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1992년 3월 독립국가연합에 가입했다. 광대한 평원국으로 기후는 대륙적으로 건조하며 초원·사막이 매우 넓다. 주민은 카자흐인이 절반이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는 1991년 카자흐스탄의 독립 이후 현재까지 집권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이다.

카자흐스탄은 제조업보다는 수출의 90% 이상을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GDP는 1인당 8,000달러 정도다. 천연자원 개발 등으로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다. 밀의 총생산량은 22,732,000톤(2011년, 세계 10위, 3.23%)이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경제 발전이 기대되는 국가로 손꼽힌다. 세계은행은 카자흐스탄을 중앙아시아에서 IT발전분야에서 가장 앞섰다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취재/ 정해밀(진주여고2)기자]

To. 재민, 지영, 지웅



호탄동 가조크들 보오르~

내가 멋진 가짜 친구를 뒀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ㅋㅋㅋ 갑자기 이렇게 편지 불러서 오글거리고 웃겨요.ㅜㅜ 우리 알고 지낸 지가 벌써 몇 년이냐. 이제 얼굴보기도 질린다. (사실 너무나도 보고 싶다. 정말로) 중학교 때 평일이든 주말이든 맨날 피방 가서 하루 종일 놀았는데.ㅋㅋㅋ 우리 패인.ㅋㅋㅋ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제일 편하고 좋았던 건 같다. 아무생각 없이 뭐하고 놀까만 고민하고 하루 시간을 도돌리고 있다. 다들 같은 고등학교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만 고등학교 통근길 실화냐? 가능하냐. 진짜? 다 같이 같은데 갔으면 얼마나 좋아? 나는 진짜 텅텅 친구도 없이 혼자 쓸쓸하게 지내다가 이제야 그러저럭 지낸다.ㅋㅋㅋ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 느낀다. 니들이랑 너무 편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낯선 환경으로 니가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다행히 잘했지만.ㅎㅎ

아무튼 다들 고등학교 가고 나서 진짜 얼굴 한번 보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서로 시간 내기가 이렇게 힘들어야 참. 아무리 바빠도 밥 한 끼

정도는 먹을 시간 만들어보자. ㅋㅋㅋ

그건 그렇고 다들 공부하는 잘 돼가냐? 고등학교 오니까 확실히 양이 확 늘고 내용도 어려워진게 실감이 난다. 그래도 다들 열심히 잘 할거니까~(지영아 니만 걱정된다.) 다들 공부도 공부지만 건강 챙기면서 하고 일단 건강이 최고다.ㅋㅋㅋ 다들 꼭 성공해서 만나자. 나는 건 축분야 재민이는 싱리분야. 지영이는 스포츠 행정분야. 지웅이는 법분야. 꼭 재기가 하고 싶은 일로 성공하자. 내가 느그들 집을 공짜로 지어줄게.ㅋㅋㅋ 주저리 주저리 하다가 말이 길어졌다. 양튼 얼굴만 봐도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 말 안 해도 다 통하는 사이니까.^^

진짜 뭐 같을 때도 있지만 니들이 내 친구들 이라는게 항상 자랑스럽다. 진짜, 정말로.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빨리 얼굴이나 보자. 사랑해 친구들!♡♡ 애디오스

-From. 미래 건축가



필통 우체통은 진주청소년신문 필통의 독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필통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편지, 고백글, 여러분의 학교나 생활속의 재미있는 사연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독자분들〉

필통 홈페이지(www.ifeltong.org)에 따로 마련된 〈필통 우체통〉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매월 신문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ltong1318>을 검색해 톡으로 사연과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필통우체통

To. 팔락팔락♡



우리 팔락팔락 안경! 나는 너네 중에 제일 예쁜 경은이야! 벌써 우리 고교 됐다 빨리 어른 도셔 클럽가자. ㅋ 참나중왕 포포 경다면. 삼현 가서 연락 없는 이나미, 남친이랑 연애했다고 안 만나주는 이연민. 만나면 웃긴 일 밖에 없는 차혜주랑 여희진. 자기 음식 사줄 때만 연락하는 이혜리. 앙스타에 빠진 김지영. 맨날 보는 윤예린은 뭐... ㅋ 그리고 애사진에 없지만 우리 팔락인 브래인 은재와 윤경이도 잘 지내겠지? 우리 빨리 시험 끝나고 만나자 친구들 사랑해! 내 서프라이즈 편지 + 윤예린 손 내가 지워줬다

-From. 예쁜 경은이

To. 댐아민

1년째 돌로생활중인 재민이! 얼굴 잘생겼는데 왜 안 생기는지 궁금하다는 재민아!

난 알 것 같은데 그렇게 써가지가 없으니 까 안 생기는 거야. 가끔 보면 너무 재수 없어서 죽어박아버리고 싶네. 맨날 알바 해서 고기 사준다고 구라만 치고 뭐만하면 ㅋ 작다고 극딜하는 내 친구. 매번 눈만 쳐 놓아서 연애도 못하고, 이따 애지만 야기다.

재민아! 이제 앞으로는 마실 것도 그만마시고 약속 잘 지키고 작년 1년처럼 앞으로 2년도 지겹게 싸우자 그리고 냉갈도 좀 죽여서 여친 만들자. 콩고왕자 화이팅!

♡경향+대부별고 2학년6반 신재민♡

잘생기고 낙타같이 건속눈썹과 큰 눈이 매력적이 넘네. 아주! 근데 재민아! 꼭 하애지자. 초코라는 감격한 강아지도 키우는 정 많은 남자. 자칭 부고 아이돌. 다른 과목은 몰라도 수학은 잘하고 오목도 잘하는 노백남! 이고남자. 친구 없어서 시간 많다던데 이상형은 예쁜 여자. 예쁜 영상남자는 취향서적이라고? 폐미 오점자! 전화번호는 010 8038 275* 언제든지 전화하면 받아주는 재민아 오라날라!

-From. 민정

ps. 콩고아 너네 나라로 돌아가. -대원-



To. 김나경

나경! 난 여원이야! ㅎㅎ 나도 이런 거 해 보고 싶었는데 니 덕분에 드디어 해 보네. ㅠ ㅠ 아침마다 늦게 일어나 미안해. 근데 누가 높은데서 계속 놀러줌. 진짜로 ㅋ ㅋ ㅎㅎ 맨날 누는 시간마다 손흥민 몸값 쳐보느라 과장이 많네. 나중에 꼭 의경 말고 손흥민이 니를 알아주는 날이 오길 기도하고 있을게. 일 년 동안 같은 반이니까 우리 수학여행도 아무 사고 치지 말고 조심히 갔다 오자. ㅎㅎ 아 그리고 내년에도 같은반 됐으면 좋겠어. 오빠 하면 니가 없는 수업은 진짜 재미가 없을 거 같음. 어쨌든 우리 케서도 연락하자 나경. ㅠ ㅠ 그리고 이제 노페 패딩에서 벗어난 니 모습을 볼 수 있겠네. 아무튼 앞으로 다 아침마다 오르막이랑 계단 같이 올라가자...

-From. 여원♡



To. 이과인 두명

내다. 내가 니들 안 건 초딩 말 때부터 안 건 같은데 중학교 때 부터 지금까지 아침마다 나 데 리러 오는 건 영광이라 생각들 하고 ㅋ ㅋ ㅋ 장난이고! 맨날 모자란 나 보팔해줘서 진짜 고맙다. 장지랑 나랑 성격 뭐 같은 거 항상 이해해주는 준하! 항상 고마워하고 내가 티격태격도 니들한테 시도 때도 없이 고마워 하고 있다. 인마! 그리고 작년에 계곡가서 재밌게 놀았는데 좀 아쉬웠잖아. 이번 여름에 갈 때는 제대로 준비해서 신나게 놀다오자. 그전에 이제 고2인데 여름에 계곡가기 전에 공부도 좀 하고, 파바방도 그만 가고 ㅋ ㅋ ㅋ

조금 부끄럽지만 우리 셋 졸업까지도 친하게 지내고, 졸업 뒤에도, 군대 가서도 추억 해줘도, 가정꾸리고도 꾸준히 만나자 사랑한다!

-From. ?



To. 단아

단아야! 폭여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일 년에 한 바퀴 돌면서(냉각) 요즘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하니까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해(신문이 언제 나갈진 모르겠지만) 있잖아. 고등학교 입학하고 힘들었던 일 많았을텐데... 특히 제일 힘든 건 나를 못 보서 눈물 흘리는게 아닐까 싶어. 너무 날 좋아하진 마. ㅎ 장난인거 알지? 사실 니가 이 과를 선택했다는 게 너무 맘잡어. 역시 난 내 남자친구가 분명해.

단아! 난 너의 얼굴이야. 말하자면 공감과 투합? 웃기게 쓴 거 이해하지? 니가 이 편지를 보고 히익~ 한 번이라도 웃었으면 좋겠어! 그랬어. 늘 자기보다 친구를 먼저 챙겨주고 친구 고민도 자기 일인듯 들어주는 단아 덕분에 너무 고마워 눈물이 쫘륵. 내하키 적응한다고 바쁜 단아랑 연락도 잘 못하는데 연락 안 해도 늘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니까 이제 보자마자 연락대려. 오랜 항상 대기중이니까!!

-From. 윤철



-From. 333333 대장 지우

To. 사랑하는 팔블리♡

안녕 우리 팔블리! 놀랐지? 안 놀랐어도 놀랐다고 해줘. 우리가 중학생 때 만났는데 벌써 고3이 되었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언제나 응원하고 있다는 거 알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은 너희들을 만난 일인 것 같아. 서로에게 힘이 돼 주고, 기쁨이 돼 주고... 정말 최고야! 너무 보고 싶다. 내 친구들! 고3이라는 시간이 길고도 험할텐데 끝까지 서로 손 잡고 이겨내자.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할 수 있다! 내 유일한 안락책가 되어 준 팔블리 너무 고맙고 사랑해!

-From. 대장



To. 준호



여! 준***아! 니다! >< 니 생일 딱 맞춰서 이런 거 있길래 쓴다. ㅋ ㅋ ㅋ ㅋ 맨날 니 놀려도 좋아서 그러는 거 알지. ㅎㅎ ㅎㅎ 요새 니랑 너무 붙어 당긴다. 고 때만 해도 이렇게 안 친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친해졌지. 이거 애들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좀 부끄럽다. 니같은 친구 있어서 좋제? 안다. ♡ 남은 몇 개월 제발 야사하면서 공부하자! 내 부탁이다. 이거 읽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읽으면 니 표정 좀 웃기겠다. 난 이쯤에서 그만 적을래. 널봐. ♡

-From. 택민

To. 보배 유진 예림



안녕 ㅋ ㅋ ㅋ 너네 생일 때 말고 이렇게 편지 처음 써보는 건 같아! 내가 갑자기 편지 쓰니까 놀랐지 ㅋ ㅋ ㅋ 고때까지는 매일매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학원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대학엔 도교 너는 일주일에 한번 만날까 말까한다. ㅠ ㅠ 서운해... 이러다가 유튜브 팸 해줘 되겠다. ㅋ ㅋ ㅋ 이거 지금 너무 잠 오는데 쓰고 있는거처럼 내가 뭐라고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막 쓴다? ㅋ ㅋ ㅋ 우리 일본 여행해서 늦게 일어나게 되고 비행기 놓칠 뻔 했던 거 생각난다! 또 시험기간에 학원에서 짜장면 사먹던 거랑... 진짜 너무 옛날 일 같이 느껴진다. 친구들랑 사랑해! 보배는 남자친구랑 싸우지 말고 오래오래 잘 사귀길 바라고 유진은 나랑 같이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ㅋ ㅋ ㅋ 예림은 나랑 같이 선화샘 보러 가장! 중학교부터 지금까지 물론 싸우기도 했지만 이렇게 우정 잘 지켜온 거 진짜 감사해! 친구들이 우리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길 ㅋ ㅋ ㅋ ㅋ ♡

-From. 아영

To. 멘토수학 패밀리

보고 있습니까? 원호 상현, 소연 수정, 현지씨! 접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때가 시험기간인데 요즘 따라 선생님님의 상태가 몹시 예민해진 것 같군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요새 학원을 너무 자주 빠지다봐 백공 해야겠다. 그죠? 제가 앞으로 조금씩 공부에 집중할테니 여러분도 협조 바랍니다. 수학 성적 올려야지요. 파하하... 현지누나는 우리보다 2배는 더 백공해야해. 누나 대학은 가자. 4월 모고는 잘 쳤어? 또 말았지? 다 알아. 장난이고 모두 힘내서 선생님 입 꼬리 귀에 걸리게 한번 해봅시다!

-From. 자칭분유기메이커, 타칭트러블메이커 양영진

To. 가현, 진경, 은서, 수진



안녕~ 애들! 나 누구지? 뭐 딱 봐도 알겠지? 니네한테 편지 쓰는 날이 다 오네. 벌써 오글거린다. 수진이가 계속 내가 쓴 편지 받고 싶다고 해서. ㅠ ㅠ 수진이를 위해 쓰는 거다!

우리 12월에 보기로 해놓고 다 시간 안 맞네. 장난 하나? 은서알지? 지금 4월이라고 ㅠ 5월에 꼭 다 만나자. 시험치고 나 1등급 받아줄게! 진짜 5월에 안 오는 애 있으면 가만 안 둔다. -- 흥. 고등학교 달라서 더 힘들다. 진경! 미용고 갔으니까 커서 세운이 머리 해주고 우리 머리도 꼭 해주기로 했다! 악착한가야? ♡ 나는 파마하고 염색할래 ㅋ ㅋ.

네네 크명은 부절. 중앙. 좋아? 나도 공학 가고 싶다고 ㅠ ㅠ. 마음 같아선 이미 진양으로 편입했음. 삼현만 5년째 앞으로 배를 물으려고 해. 수진아 포항 계획 빨리 세워라. 근데 난 서울 가고 싶어 ㅎㅎ. 우리 이 사진 벌써 약 2년 전 사진이다. 우리 왜 이리 어릴데 ㅋ ㅋ ㅋ ㅋ 다시 중크로 돌아가고 싶다. ㅠ ㅠ 보고싶어!

-From. 333333 대장 지우

필통네모
로직퍼즐

독자여러분! 필통 네모로직 퍼즐 퀴즈를 풀어 완성된 퍼즐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필통 홈페이지(www.feeltong.org)에 마련된 <자유 게시판> 게시판에 올려 주시거나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톡으로 전송해 주세요.

[이번 호는 2018년 5월 15일(화)까지 접수분에 한해 추첨합니다.]

보내주신분들 중 추천을 통해 37분을 추천해 2명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을, 또 35명에게 문화상품권 5천원을 각각 드립니다.(보통가등) 당첨도신분들은 필통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다음호 신문에 게시합니다.

※ 네모로직이란?

칸이 있는 숫자퍼즐로, 윗쪽과 왼쪽에 있는 숫자들 만큼 칸을 칠해 그림을 완성시키는 퍼즐이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의 숫자가 가진 규칙을 활용해 한 칸 한 칸 색칠해 그림을 완성시키는 퀴즈입니다. 공부하다 잠 올때,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전해 보세요. 필독으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무지 높음 것 이시죠^M

〈로직의 기본 규칙〉

- 문제의 위와 왼쪽에 있는 숫자는 해당열 안에서 연속해서 칠할 수 있는 칸의 수를 의미한다.
- 한 열에 여러 개의 숫자가 있는 것은 숫자의 순서대로 숫자만큼 칸을 연속해서 칠함
- 칠해지는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반드시 한칸의 이상 의 공란이 있어야 한다.

[illegible]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2등 - 문상 1만원(2명): 이우현(진주여고1-1) / 오윤희(대교고3-7)
2등 - 모성 현상금(35명): 김학주(경진고2-4) / 임우진(경남사동중2-3) / 장민하(경남예고 3-에) / 전민희(공공광곡고3-8) / 하지경(신영여고1-4) / 문경규(진주시공3-1) / 양영훈(경진고3-9) / 구해성(대교고2-7) / 이은진(대교고2-9) / 이기창(충양고3-6) / 강다영(중앙고1-2) / 이훈민(경북여고2-2) / 박지윤(경북여고3-9) / 진수빈(사대부고1-3) / 장준호(사대부고2-1) / 김진아(제일여고1-9) / 정미리(제일여고2-10) / 노성구(한양고2-10) / 공수현(한양고2-6) / 최원태(대교고1-4) / 구태우(대교고1-5) / 김재현(동명고2-10) / 배준(동명고1-9) / 송지민(경애고2-3) / 하예진(경애고2-3) / 이윤하(경진중2-2) / 이무진(신안고1-3) / 배철환(진주여고2-4) / 이재은(진주여고1-5) / 구지수(봉원중2-3) / 한준호(진주중1-4) / 김민규(진주동중1-7) / 김현우(동명중3-1) / 김상우(대يج중2-1) / 김지선(신영여중3-6)

청소년 여러분 많은 응모 바랍니다.

*당첨된 분은 학생기자 또는 선생님이 문화상품권을 전달해 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만일 받지 못하는 경우
필통으로 연락 주세요 (대표전화: Tel 070.8628.1318 / H/P 010.3881.8808 카톡으로 메세지도 남겨주세요)

2018
진주청소년뮤지컬단
다재다능
AUDITION

진주청소년뮤지컬단 다재다능 2기 오디션

- 일시 : 2018년 5월 6일(일) 4시
 ■ 장소 : 소극장 ‘날개’
 (진주시 진양호로 257. 진주 펑거볼링센터 2층)
 ■ 대상 : 서부경남 청소년 누구나
 ■ 모집인원
 〈배우팀〉 남자 8명 / 여자 8명
 〈악기팀〉 기타 2명 / 베이스 1명 / 건반 2명
 드럼 2명
 ■ 신청방법
 1. 이메일 접수 frogdragon@naver.com (자유양식)
 2. 진주청소년뮤지컬단 다체다능 페이스북 접수
 3. 문자 접수 : 010-2558-3194
 ※접수 내용 : 이름/나이/성별/학교
 연락처/주소/기
 배우 또는 악기
 (ex : 홍길호/18세/남/진주교
 010-0000-0000/진주 펑거동
 배우팀 or 악기팀(드럼))

- 접수기간
2018년 5월 4일(금) 까지
■ 오디션 내용
〈배우팀〉 자유연가-1분 내외 / 댄스-1분 내외
보컬-1분 내외
〈악기팀〉 자유곡 1분 내외
■ 주최/ 문의
더 플레이
055-743-3194 / 010-2558-3194



진주 iCoop 생협

필통을 후원합니다.
필통을 진주의 자랑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illegible]

활동지정 배우처 | **〈천전동〉**글리스박스/채산당/제일종은약국/소조백방/신월해어/초록마을/커피포트/공세상/칠암주민센터/녹원어린이집/진주남교회/크니크니/석옥호수학/동훈서점/신성로서관/소문난서점/신한샘터점/커피북는<신안, 평거, 이현동>바람이불어오는곳/블레스유/황금알강장탕/한빛교회/정인미소/신세계수영장/만리장성(시해방)/와비/피아노/헛구멍잡힐/우물쭈/큰비위서점/전주문고/새하학원/전주명예교회/아이클럽전주점/임정현루워킴빌딩사적지/책/대마서점/여중문고/성지향(시나지역)제일민간결월/등산교회/다림/죽형/태오김밥/감각사랑/전주교회/포스타/포스타/문학당서점/예원/대양서적/비디오편지점/한양꽃집/YMCA/열도교복/함성서/교회사/디스커버리/노스페이스/근대문화/플랙카프/필리아웃door/요미모트/노크레이프/코요이두루리/무학대학교원/본관건축학/연비내/저주교과/부네내/타라/엠티스/조지수미/다양체재/독자지식/WECA/신성서관/전주대서점/서가이더/기노/티엔/셀프캐러/주춧돌/눈꽃극장/윌앤루/교문서점/파류문고/다이프렌드/노르웨이/드림오피스/스톡킹/볼록킹/문학당서점. 함성서점.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FEELTONG 

(우) 660-980 경남 진주시 남강로 720 (옥봉동, 2층) / 1999년 4월 9일 창간 / 등록번호 진주라00001(월간) / 발행인 인쇄인 대표이사 이혁 / 편집인 편집국장 김가희
전화 070-8628-1318 팩스 0303-0957-1318 / 홈페이지 www.ifeeltong.org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